

18일 Market Index			
↓ 코스피	2824.35	↓ 코스닥	822.48
	(-18.94)		(-6.93)
↑ 금리 (미국 9년)	3.060	↓ 환율 (원/달러)	1381.25
	(+0.010)		(-0.25)



“벤처투자 편중 심화 성장가능기업 투자를”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 2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평균 수명 100세’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중장기 자산관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가운데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가 열렸다. 이번 포럼은 저성장·양극화 기조 속 ‘100세 시대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는 재테크 전략을 주제로 강연이 구성됐다.

〈관련기사 L7·L8면〉

포럼 전 차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0세 플러스 포럼을 두고 “현시점에서 ‘중장기 자산 관리’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리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정부도 ‘자산 관리’를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번 하반기부터 22대 국회와 구체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중장기 자산관리 중요성 강조 금투세 업계 우려·재논의 대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벤처 시장, 미래 볼 수 있어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도 “밸류업이 화두인 시기에 이런 포럼이 열려 감사하다”며 “이런 움직임들이 모여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차담회에 참석한 금융투자업계 기관장들과 증권사 대표들의 관심은 ‘금융투자소비세’와 ‘벤처 투자’로 몰렸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의장은 “펀드가 망하게 생겼다”며 금투세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출했다.

현재는 국내 주식 매도 차익에서 나오는 결산 분배금은 비과세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증권사 대표들도 금투세 도입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 회장은 “다음주에 정부의 세계계편안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나오면 알게 될 것”이라며 여야의 팽팽한 대립을 예상했다.

또한 벤처 투자가 다양한 섹터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벤처 시장은 주식시장과 다르기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에 참석해 내빈들과 대화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4~5년 후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며 “(벤처 투자는) 상상력이 필요한 섹터지만 투자 편중이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서 회장은 “최근에는 모범 기업에 자금이 안 흐른다는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고 동감했고, 이 원장도 가능성 있는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으면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전략이 공유됐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채원 의장은 밸류업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정의하며, ‘코리아 밸류업’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투자자들에게 기업 거버넌스가 투명한 기업에 가치를 두고 투자할 것을 권했다.

그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세법 개정과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산 관리 부분의 강의를 맡은 김경록 미래셋자산운용 고문은 자산의 ‘축적기’와 ‘인출기’의 차이를 설명하며 인출기에는 ‘상품 배분’이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평균수명 이후의 ‘불확실성’을 대비할 수 있도록 자제한 예시도 들었다.

이어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은 양극화된 국내 부동산 시장과 진단하고, 향후 부동산 투자 시장을 전망했다.

끝으로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팀장은 최근 활발해진 ‘미국 투자’ 분야의 전략을 소개하며 실제로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주주환원을 실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커버스토리

‘어대한’ vs ‘어대명’, 여야 강대강 불보듯

전당대회

與 한동훈, 野 이재명 선출면
국회 담보상태 지속 가능성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전당대회에 등판한 가운데, 두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22대 국회 초반부터 ‘강대강’ 대치 상황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기 대권 후보로 평가받는 두 사람은 22대 총선에서 당을 이끌며 서로 네거티브 공세로 맞붙었는데, 갖가지 쟁점 사안으로 충돌한 이번 국회를 담보 상태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4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약 4주 간격으로 열린다. 국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

민의힘은 지난 17일 최고위원·당 대표 후보 전국순회 합동연설회를 마쳤다.

이제 선거인단 모바일투표(19~20일), 선거인단 ARS투표(21~22일), 일반국민 여론조사(21~22일)를 통해 당 지도부를 꾸린다. 오는 2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80%, 일반국민 여론조사 20%가 반영한 선거 결과를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제주와 인천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선거 반영 비율을 대폭 높였는데, 대의원 14%·권리당원 56%·일반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된 투표 결과를 다음달 18일 전당대회에서 발표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감지돼 전당대회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국민의힘에선 나경원·윤상현·원희룡 후보 등 당의 중진들이 나왔으나 여론조사 상 한동훈 후보에게 지지가 쏠리는 모습이다.

〈4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집중호우로 통제된 잠수교

18일 연일 이어진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서울 서초구 잠수교 보행로 및 차도가 통제되어 있다. /뉴스1

“수도권 주택 2만가구 이상 추가공급”

최상목 부총리, 주택시장 점검
2029년까지 23.6만가구 분양
공공매입임대 1만호 이상 추가

정부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오는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다. 또 수도권 주택공급을 2만가구 이상 늘릴 계획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총 23만6000가구를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늘린다.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번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면서 도심 주택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바 있다.

〈8면에 계속〉

/김대환 기자 kdh@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윤, 체코 원전 수주 위해 두 차례 특사·친서 보내… “됐다” 환호 /뉴스1
- ▲ 한동훈, 나 ‘공소 취소 청탁’ 발언 사과… “평화할 생각 아니었다”

- ▲ 국방부 “예비군 훈련 180일 확대? 검토 안해”
- ▲ 민주 “우 의장 방송법 중재 방안 수용… 민생지원금 등은 25일 처리”



- ▲ 조국 ‘국힘 댓글팀·공소 취소 청탁’ 등 수사 촉구… “고발 검토” /사진뉴스1
- ▲ 추경호, 장미란 차관 만나 ‘추구협회 감독 선임 논란’ 논의

“합병비율 1대 1.19... 자산 100조, 재무구조 더 견고해질 것”

SK 이노-E&S 합병 기자회견

에너지 포트폴리오 개선 등 기대
‘대한민국 경제발전 기여’ 비전 제시
공동 시너지 TF로 경쟁력 강화 계획

“미래 에너지 사업에서의 확고한 성장 기반을 만들고 세계 일류 에너지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이번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18일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은 18일 SK 서린빌딩에서 열린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전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합병안을 의결한 뒤 합병 비율을 1대 1.1917417로 정했다. 산출 배경은 양사의 기업 가치를 근거로 삼았다.

합병의 의의에 대해서는 ‘원래 하나였던 두 회사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결합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박 사장은 이번 합병에 따른 기대 효과로 ▲양사의 에너지 포트폴리오 개선 ▲SK이노베이션 재무 및 손익구조 안정화 ▲양사의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 창출 3



박상규(왼쪽에서 두번째) SK이노베이션 사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가지를 꼽았다.

재무 건전성 향상도 주요 기대요인으로 지목됐다. 합병회사는 자산 100조 원, 매출 90조원 규모의 외형을 갖추는 것은 물론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합병 전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5조8000억원 수준으로 커져 재무·손익 구조도 강화된다.

박 사장은 “합병으로 SK이노베이션의 재무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EBITDA는 기존 대비 약 2조원 상승한 6조원으로 세전이익은 기존 대비 1조5000억원 상승한 2조5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SK E&S와의 합병을 통해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배터리 사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아울러 양사 합병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공동 시너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나간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일각에서는 SK E&S가 비상장사인 만큼 합병비율 산정 결과에 따라 주주, 재무적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의 반발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합병 비율이 비교적 동등하게 책정됐지만 여전히 이해 관계자 설득은 과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양사는 SK이노베이션 기존 주주들과 SK E&S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보유한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동의를 받아야 합병에 이를 수 있다. KKR은 약 3조원 규모의 SK E&S 상환전환우선주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KKR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것이며 합병 법인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생각 안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건기 SK E&S 재무부부장도 “합

병에 있어 특별한 변수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 E&S의 내부 조직 구성원들의 불만과 잡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간 실적이 좋았던 SK E&S는 이번 합병으로 인해 성과급 축소,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 등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 사장은 “합병 특성상 워낙 이해관계자가 많아 일정부분 결정되기 전까지는 주식시장 염두도 있기에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설정을 못 준 건 사실”이라며 “다만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공감을 얻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SK그룹은 현재 사업 리밸런싱(구조조정)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박 사장은 “상당 기간은 현재 조직이 시너지를 내고 안정화하는 게 급선무”라며 “SK이노베이션 차원에서 추가적인 변화를 추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는 다음 달 27일 열린다. 합병 기일은 11월 1일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금리 떨어지는데 대출금리 올리라니... 은행들 ‘곤혹’

금융당국, 가계대출 증가 ‘고삐’
은행권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시간두고 금리 추가인상 예정
수익 늘면 ‘이자 장사’ 비판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에 고삐를 죄자 은행들이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은행채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금리를 올려 은행의 이익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은행의 혼합금리형 주택담대 금리는 2.85~4.86%로 집계됐다. 지난달 21일 혼합금리형 주택담대 금리는 연 2.94~5.70%였다. 약 한 달 새 하단기준 0.09%포인트(p), 상단 기준 0.84%p 내렸다. 혼합금리형은 은

행채 5년물의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사실상 고정형으로 불린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압박에도 금리가 내렸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 이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금리를 올렸는데, 시장금리(은행채 금리)가 내리면서 효과가 상쇄됐다”며 “시간을 두고 주택담대, 전세자금대출을 대상으로 금리를 추가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혼합(고정)·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p 인상한다. 신한은행은 22일 은행채 3년물·5년물과 연동된 대출 상품의 금리를 0.05%p 올린다. 우리은행은 고정형 주택담대 0.15%p, 전세자금대출 0.15%p 인상한다. 하나은행은 아직 인상 계획이 없지만 시장 상황에 따

라 금리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택담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은행 이익만 불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4대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연 3.35~3.45%로 집계됐다.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에 영향을 주는 은행채 1년물 금리는 17일 기준 연 3.316%로 이달 초(연 3.476%)보다 0.16%p 낮아졌다.

반면 대출금리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등 오르는 추세다. 혼합금리형 주택담대 준거금리가 되는 은행채 5년물(AAA)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323%로 이달 초(3.49%)와 비교해 0.17%p 낮았다. 은행채 금리가 하락해 예금금리가 내려가는 가운데 대출금리를 올리면 예대금리차가 커지면서 은

행의 이자수익이 늘어난다.

시장에서는 3분기 이후 은행의 예대마진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광명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은행의 금리인상으로 대출 성장은 둔화될 것”이라면서도 “가산금리 조정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이 순이자마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난처한 상황이다. 가계대출을 줄이자니 금리인상이 불가피하고, 금리인상을 통해 수익이 늘면 이자장사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의 수익이 늘어난다”면서도 “지금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금리인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윤석열 대통령 과기부장관 후보 유상임 교수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유상임(65·사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유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과기부 장관이 교체되는 것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장·차관급 인사 소식을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환경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이번 인선으로 국정 쇄신을 위한 윤석열 정부 3기 내각 구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윤 대통령은 검증이 완료되는 순서대로 타 부처 장관 교체도 단행할 전망이다.

강원 영월 출신인 유상임 후보자는 서울대 요업공학과(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유상임 후보자는 배우 유오성 씨의 둘째 형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상범 국회의원의 형이기도 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 인사로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62) 전 국민의힘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성섭(54)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남형기(58)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인선했다.

태 신임 사무처장은 북한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외교관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서예진 기자 syj@

“체코 역대 최대규모 투자... 본산지 원전수출 교두보”

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원전’ 브리핑
내년 3월 최종계약, 2029년 착공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지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라면서 이같은 의

미를 부여했다.

안 장관은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10기 연속운전 등 그동안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원전 생태계 복원에 더욱 분발하겠다”며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체코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날 저녁 9시경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 수력원자력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체코 신규원전 사업은 최대 4기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다.

체코 정부에 따르면, 체코 측의 총 예상 사업비는 2기 약 24조원 수준이다. 최종 계약금액은 한수원과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1000MW(메가와트)급 대형 원전 설계부터 구매, 건설, 시운전, 핵연료까지 일괄 공급하게 된다.

내년 3월 최종 계약 체결 후 2029년 착공때까지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첫 호기 시험가동은 2036년이 목표다. 체코 정부는 추가 2호기 건설 계획을 향후 5년 내 검토해 추가 건설 여부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

결정하게 된다. 추가 건설 계획이 나오면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계약 협상을 벌이게 된다. 계약 금액은 이번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의사에서 기업인으로... '인본주의적 지속가능경영' 실천



CEO 리서치

신 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의사로 일하다 기업인의 길을 걷게 된 남다른 이력의 소유자다. 신 의장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두 번의 험난한 파고를 넘었다. 그리고 교보생명의 내실 성장을 주도해 왔다.

◆ 18년간 의사 생활... 교보생명 사령탑 '인생 2막'

신 의장은 1996년 11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직을 뒤로 하고 교보생명 부회장에 취임했다. 당시 암투병 중이던 선친 신용호 창업자의 간곡한 권유에 따른 것이다. 신 의장은 18년 동안 입었던 흰 가운을 벗고 '인생 2막'을 시작했다.

4년 뒤인 2000년 5월 교보생명 대표에 올라 최고 사령탑을 맡았다. 그해 교보생명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었다. 외환위기 여파로 수년간 떠안은 자산 손실만 2조3869억원에 달했다. 순손실 규모만 2540억원이었다. 신 의장은 '수술대'에 오른 교보생명에 메스를 꺼내들었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재직 선친의 뜻 이어 받아 생보업 종사 "생명보험, 가장 아름다운 금융제도"

당시 보험업계는 허울 뿐인 외형 경쟁 탓에 부실 계약 사례가 만연했다. 설계사와 영업소장이 합심해 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수당만 받아 바로 해약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신 의장은 불법적인 영업 관행에 마침표를 찍고 매출 경쟁이 아닌 교보생명의 창업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정도'를 벗어나는 것은 그가 추구하는 경영 철학과 결이 맞지 않았다.

수입보험료 확대가 아닌 고객을 앞세운 웰리티 경영, 내실 경영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2011년엔 보장 유지에 초점을 맞춘 '평생든든 서비스'를 선보이고 고객 중심 경영을 한층 강화했다. 재무설계사들이 고객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현재 가입 중인 보험상품의 내역을 직접 설명해주고 놓친 보험금이 없는지 확인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고객서비스 방식이었다.

신 의장은 "의대 교수를 하다가 선친의 뜻을 이어받아 평생 생보업에 종사하게 된 제 운명을 그 무엇보다 보람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생명보험이야말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다른 이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상부상조 정신을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금융제도이다"라고 말했다

◆ 사람 중심 경영... 금융권 최고 수준 신용등급 달성

선친 때부터 이어온 '국민교육 진흥'이란 창립 이념과 사람 중심의 기업문화는 이해관계자 모두의 균형 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적 지속가능경영'으로 한 단계 도약했다. 기업의 존재 이유를 '사회적 책임(CSR) 경영'보다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개념이란 평가다.

신 의장은 회사가 단순한 이익 창출을 넘어 고객, 재무설계사(FP), 임직원, 투자자, 정부, 지역사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상생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기업 경영을 산소에 비유해 "사람은 산소가 없으면 살 수 없지만 산소를 위해 살지 않는 것 처럼 기업의 이익은 생존을 위한 연료지만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본질에 집중해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한다는 게 신 의장의 확고한 경영 철학이다.

교보생명의 혁신은 괄목할 만한 재무성과로 이어졌다. 2000년 2500억원이 넘는 적자에서 연간 5000억원대 순이익을 올리는 회사로 탈바꿈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도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 무디스 9년 연속 'A1', 피치 11년 연속 'A+' 등 세계 주요 신용평가사로부터 금융권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부여받았다. 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털어내고 내실 경영에 집중해 올린 성과여서 더 돋보인다는 평가다.

신 의장의 인본주의적 지속가능 경영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세계보험협회(IIS)로부터 '보험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2023 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1996년 명예의 전당에 오른 신용호 창업자에 이어 세계 보험산업 역사상 최초로 부자(父子)가 함께 헌액됐다.

조시 란다우 IIS대표는 "신 의장은 변화 혁신과 통찰력 리더십, 사람 중심 경영을 통해 '보험 명예의 전당'의 정신을 구현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신 의장은 "생명보험이 사랑의 정신으로 운영되는 금융제도를 널리 확산시키고 생보사들이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사회복지 및 금융시스템으로 충실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것이야말로 저의 사명이자 사회적 책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 "실패 두려워하지 말아야"... 도전 정신 강조

신 의장의 '정도경영'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올 사람이란 얘기가 나돌 정도다. 그는 "세상에는 거저와 비밀이 없다"는 선친의 가르침을 새기며 오랜 윤리경영으로 쌓은 교보생명의 명성을 잃지 않기 위해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1월 힐튼 싱가포르 오차드 호텔에서 열린 '2023 글로벌인슈어런스포럼'에서 '2023 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다.



지난 1월 24일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서울 광화문 본사 23층 대강당(대산홀)에서 본사 직원들과 열정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지난 1일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 본부에서 열린 '2024 제네바 기업가정신 포럼'에서 '글로벌 윤리경영과 이해관계자중심 경영대상'을 수상했다. /교보생명

노력한다.

신용호 창업자가 2003년 별세할 때 신 의장 일가는 당시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인 1830억원의 상속세를 냈다. 당시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었던 신 의장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교보생명 주식을 몰납하기도 했다.

내실·고객 중심 정도경영 추구 교보생명, 톱티어 생보사 도약 '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 수상

또한 신 의장은 회사 경비 역시 결코 허투루 쓰는 법이 없다. 매년 명절 때마다 임원에게 보내는 선물세트 역시 모두 사비에 서 충당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신 의장의 독특한 소통 방식은 중요 포인 트마다 임직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었다. 지난 2000년 회사가 어려울 때 교보생명이 금융감독원에 파산 신청을 냈다는 가상 뉴스를 제작한 게 대표적이다. 마치 지상파 방송 뉴스처럼 만들어진 덕에 당시 연수원에 모여 시청한 임직원들이 실제 상황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이는 회사 안팎에 "변화와 혁신이 아니

면 모두 죽는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신 의장의 개혁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됐다. 지난 2001년 회사 비전과 기업이미지(CI)를 선포하는 자리에서 개그맨 이경규씨의 가면을 쓰고 등장한 것도 유명한 일화다. 간판만 바꾼다고 회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임직원들의 행동이 바뀌어야 비로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

고객만족재무설계사(FP) 대상 시상식에 선 컨설턴트의 수고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한쪽 무릎을 꿇은 채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으로 감동을 선사했다. 임직원들 앞에 통기타를 든 가수로 변신하거나 가짜 수업을 붙인 채 난타공연을 선보이는 등 재벌 회장답지 않은 친근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신 의장은 직원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이 필요하다"며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도 아끼지 않는다. 고객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혁신과 이 과정에서 조직원들이 건강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기업 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 의장은 "실패는 성공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또 혁신을 지속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신창재 교보생명대표겸이사회 의장

1953년 서울출생
1972년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8년 서울대의과대학 졸업
1981년 서울대의과대학원 의학 석사학위 취득
1989년 서울대의과대학원 의학 박사학위 취득

1987~1996년 서울대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
1993년~1995년 현대산문화재단 이사장
1996년 교보생명 부회장
1999년~2000년 현교보생명대표겸이사회 의장
2000년~2004년 현한국메세나협회 부회장
2004년~현한국여성재단 이사





한동훈(왼쪽부터), 윤상현, 원희룡,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CBS 김현정의 뉴스쇼 특집'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지수(왼쪽부터), 김두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CBS 김현정의 뉴스쇼 특집'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집중견제 속 힘 얻는 韓 vs 자신 기록 도전하는 李

최대과제 극복이 승부처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화려한 경력의 중진들을 상대해서도 개혁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며 존재감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최대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일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졌다고 알려진 한 후보가 당을 장악해 의원들을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2년 전 77.77% 득표율로 당선된 지난 전당대회보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 반(反)이재명을 외치는 후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율을 가져갈 경우, 대권을 노리는 이 후보의 지위도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민주당의 대표 정책을 개편해 중도층에 다가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이 대표가 의원들과 전통 당원들의 반발을 이겨내고 이를 관철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 만한 대목이다.

韓, 개혁 이미지로 존재감 발휘 중진 당 대표 상대 득표 여부 주목 尹 대통령과 관계 설정 최대 과제

◆輿 중진 둘러싸인 '정치 신인' 韓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첫 번째 관전포인트는 한동훈 후보가 중진 당 대표 후보들을 상대로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 결선투표 없이 당 대표직에 오를지 여부다. 한 후보는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 사과 문자 읽씹' 논란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고 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받는 원희룡 후보가 띄운 '3대 의혹(사천, 김경률 전 비대위원 금감원장 추천, 댓글팀 운영)' 제기에도 지지도 하락은 나타나지 않았다. 데일리안 여론조사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5~16일 간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 응답률 2.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가 43.7%, 나경원 후보 11.3%, 원희룡 후보 11.3%, 윤상현 후보 6.1% 순이었다.

두 번째 관전포인트는 이른바 '팀 한동훈'이라고 불리는 최고위원들의 지도부 입성 여부다. 팀 한동훈은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진중오 의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박정훈, 장동혁 의원을 말한

다. 한 후보 입장에서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최소 2명의 한 후보 측 최고위원을 확보해야 지도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일각에선 친윤계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1인2표제'를 이용해 친윤계 후보들의 다수 지도부 입성을 노린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韓,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최대 과제

세 번째 관전포인트는 한 후보가 과연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의 입장에서, 윤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한 후보는 법무부장관으로 '스타' 장관에 올랐으나,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오른 뒤에는 윤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지며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까지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15일 충청 지역 합동연설회에선 한 후보의 연설 중 일부 관객들이 '배신자'라고 외치며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한 후보는 한 언론 인터뷰에 출연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배신자론에 대해서 "(윤 대통령 탄핵은)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제가 당선 되면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인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李, 지난 전당대회 기록 경신 과제 '먹사니즘' 내세워... 민생·경제 강조 중도층 소구 전략 수립에 관심 높아

◆압도적 표 차이로 이겨야 명분 얻는 李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세웠던 기록에 도전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77.77%라는 압도적 지지율을 얻어 당 대표에 당선된 바 있다. 당시 상대가 당 내 세력이 많지 않다고 평가되던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었던 것에 비해, 지금 주요 상대는 노무현 정부에서 첫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내고 경남도지사까지 역임한 당에서 경륜이 깊은 김두관 후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전당대회부터 이 대표의 지지층이 많은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이 확대됐기 때문에 지난 전당대회 수준의 득표율이 나오지 않으면 당 대표 연임을 하더라도 그 의미는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개한 여론조사공정의 조사에서 민주당 당 대표 적합도를 묻자 이재명 후보 42.7%, 김두관 후보 24.1%, 김지수 후보 1.5%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이재명 후보 74.9%, 김두관 후보 9.8%, 김지수 후보 0.8%로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 사이 격차는 벌어졌다.

한편, 해당 기사에서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중도층 소구 전략, 득실 계산 잘해야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당 대표 출마를 하면서 자신이 표방하는 핵심가치로 '먹사니즘'을 들고 나왔다. 그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이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유

예를 시사하면서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관심이 많은 모습이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 0.73%포인트 차이로 패배했기 때문에 추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이른바 '우클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민주당 대표 정책을 건드리는 것에 반감을 가지는 민주당 국회의원이거나 전통 당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후보가 당권을 차기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로 보이게 하는 것도 문제점을 지적된다. 18일 오전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에게 대통령 선거일 1년 전 출마자의 당직 사퇴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을 두고 2026년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물었으나, 이 후보는 "가능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韓 "민주당 입법 독주 막을 사람 자신 뿐"

>> 1면 '전당대회'서 계속

민주당도 당의 사당화를 비판하며 김두관 후보,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강조하며 김지수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으나 이 대표의 아성을 뛰어넘기 힘들다는 시선이 많다.

한동훈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당을 이끌었으나, 참패를 당하고 직에서 물러난 지 3개월 만에 정치권에 다시 돌아오면서 중앙 무대 복귀를 노리고 있다. 한 후보의 조기 복귀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김건희 여사 사과 문자 논란' 등 의혹 제기에도 경쟁 후보들을 따돌리는 상황이다.

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절절한 감정을 가감 없이 내보이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사람은 자신이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 후보는 지난 17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그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지지자들께서 '이제는 일어나라', '저 한사람 지키기 위해 나라 망치고 있는 무도한 민주당과 싸워서 이겨내라'고 명령하셨다"고 말했다

다. 그러면서 "헌법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명령이었고, 이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라는 명령이었다"며 "저는 그 명령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첫 번째 당 대표 임기 중 사법리스크 위기에 버텨내며 당을 본인 중심 체제로 개편해왔다. 총선 과정에서 자신에게 비판을 가하던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당을 빠져나가면서 연임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열린 CBS 방송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제3차 특검 추천'이 핵심인 고(故) 채상병 특검법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다른 후보들과 달리 혼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 현재 수사와 기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들이 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가 엉망이 아닌가"라며 "임명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상황이라 저는 지금 현재 특검법(여당 배제 특검 추천)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고 선을 그었다. /박태홍 기자

나의 도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를 넘어설 것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시 미래에너지까지

혁신에 혁신을 더하다



“전북, 첨단산업 교두보로… 완주 수소특화산단 조성 추진”

尹, 27번째 민생토론회

新서해안 시대 여는 전진기지 전북 신뢰성 검증센터 등 인프라 확충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도약 방안 논의 내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정읍시를 방문해 “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신(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27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의 현안을 경청하고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주민들과 논의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아주 매우 큰 지역”이라며 “전북이 공들여서 육성하려고 하는 2차 전지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저는 전북의 도약을 위해서 세 가지의 단어를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첨단 ▲생명 ▲문화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미국 첨단산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며 “정부는 새만금 단지를 미래 신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투자진흥지구와 2차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하고 기업 중심 정책을 펼쳐왔다”며 “그 결과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10조2000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2013년 새만금개발청

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유치한 투자 금액의 6배가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전주, 정읍을 포함한 전북 4개 지역을 탄소 융복합 모빌리티, 동물의약품과 건강기능성 식품 분야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며 “앞으로 전북이 직접 발굴하고 설계한 미래 혁신 산업을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28년까지 추가로 1000억원을 투입해 탄소 부품과 응용 기술 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며

“완주에 계획 중인 수소 상용차 산업벨트 구축을 빠른 속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3월 완주가 국가 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만큼, 2030년까지 2500억원을 투입해 수소 특화 국가 산단을 조성하고 2026년까지 신뢰성 검증센터와 같은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산단의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2029년까지 700억원을 투입해 전주, 완주, 정읍에 걸친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군산을 중심으로 무인잠수정 등 해양 무인장비 실증 시험을 지원하는 한편, 김제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익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전북 내 농생명 산업 인프라를 거론하며 전북을 농생명 산업 클러스터로 키우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생명산업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며 “김제·장수에 2만4000평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고, 푸드테크 등 미래 유망 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도 농생명 지구 지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새만금에는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해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 시설이 입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와 관련해서는 “전북이 전주 한옥마을, 남원 공예 등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주, 군산, 남원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겠다”며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북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소년 전용 훈련시설인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과 전북권 통합재활병원도 2026년까지 완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해 ‘생명 경제도시’ 전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을 특별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서연진 기자 syj@metroseoul.co.kr

李 “당원 의사 의한 결과물… ‘일극체제’ 표현 옳지 않아”

野 당 대표 후보 첫 토론회

김두관·김지수 “일극체제 공감”
종부세·금투세에서도 입장차

더불어민주당의 8·1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김두관·김지수 후보가 18일 당 ‘일극 체제’·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논란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일극 체제’라는 표현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 후보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한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첫 토론회에서 ‘언론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용어인 ‘일극 체제’라는 표현에 일부 공감하느냐’는 OX 질문에

김두관·김지수 후보는 O(공감한다)를 들었고 이재명 후보는 X(공감하지 않는다)를 들었다.

‘공감한다’고 한 김두관 후보는 “우리 당의 생명이 역동성과 다양성인데 민주당의 DNA가 많이 훼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꽤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김지수 후보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가고 있었다. 힘센 쪽으로 권력이 몰리기 마련”이라며 “보이기에 ‘일극 체제’지만 다극 체제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 같은 사람이 생겨서 돌풍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결국 당원들이 선택한 것이고, 당원들의 지지율이 80%를 넘는 상황을 ‘체제’라고 할 수는 없다”며 “민주적으로 당원들의 의사에 의한 결과물을 체제라는 표현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세 후보는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두관 후보는 종부세 완화·금투세 유예에 반대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미래 사회를 언급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기본 소득과 복지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종부세는 주택 보유자 2.

7%, 금투세도 5000만원 이상 (금융)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한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유승민 전 의원의 말처럼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와 금투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감세’는 결이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와 금투세에 대해 “마치 신성불가침의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며 실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저는 종부세 전체에 관한 얘기보다는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구입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 제재를 당한다’라는 생각이 들

면 억울할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은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에 대해서 “정부가 원하니 일시적인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논의해 보자’ 그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지수 후보는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금투세와 관련된 것들은 미래세대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젊은 세대가) 부를 만들기 위해 부동산·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 (금투세 도입으로) 이들의 자산 증식에 대한 욕망을 꺾지 않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금투세가 실행되면 해외 자본이 유출될 수 있고, 우리 투자도 해외로 갈 수 있다”며 한반도 리스크와 금투세를 통한 자본 유출이 겹치면 ‘더블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도현 수습기자 yunbgb0611@

국민통합위 “정책금융 성실상환하면 이자 페이백 제공해야”

우체국, 은행대리업 도입 추진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강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는 18일 서민들의 정책금융 성실상환을 위해 ‘이자 페이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에 법정부적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사전 예방 노력과 처벌 수준 강화를 제안했다.

국민통합위 ‘포용금융으로 다가가기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출범한 특위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해 왔다.

이날 특위가 제안한 정책은 ▲정책금융의 지속가능 기반 강화 ▲금융서비스사각지대 해소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포용금융 혁신생태계 조성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특위는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정책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상품을 한 눈에 조회하고 비대면으로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금융 부실율을 줄이고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체 없이 전액 상환한 경우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이자 페이백 제공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줄어드는 은행점포를 우체국이 대신할 수 있도록 전국 2500개 점포망을 보유한 우체국에서 입출금, 잔액조회 등 단순업무뿐 아니라 예금 가입 등 다양한 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행 점포와 ATM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서는 서민의 생계와 신

변까지 위협하는 사회악인만큼 법정부적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부업체의 정보제공 확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 강화 등 사전예방 노력과 미등록대부업체, 온라인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민간 역할을 강화하고 포용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한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포용금융 우수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과 포용금융 가치를 창출하는 핀테크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특위가 발표한 정책 제안은 이후 부처협의 등을 거쳐 보완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사진)은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빚을 제 때 못 갚는 자영업자가 11년만에 최고치로 올랐고 신용도가 낮은 이들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한다”며 “더구나 어쩔 수 없이 살인적인 고금리 사채를 이용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하는 반면, 제도적 보호장치가 무력화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의 생계 뿐만 아니라 신변까지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피해는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고 사후에는 엄중하게 대응해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부처에서는 국민이 체감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제안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연진 기자

매점마다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아도 시킬 때마다!

최대 20% 즉시 적립

최대 15% 추가 할인효과

배달앱 땡겨요로
혜택 가득 배달 생활하세요!

모든 주문 최대 10% 포인트 적립
땡겨요 페이로 주문 결제 시 최대 10% 포인트 즉시 적립

땡겨요 플러스 고객 추가 10% 포인트 적립
땡겨요 플러스 고객이라면 모든 주문 10% 포인트 추가 적립

신규 고객 총 1만원 할인 쿠폰
첫 주문은 물론 두 번째까지 총 1만원 할인

지역화폐 결제 시 최대 15% 할인 효과
서울 전 지역,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지역화폐 사용 가능
(2024년 6월 기준, 협약 지역 지속 확대 중)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준법감사인 사전심사필 제 2024-12903-1호 (2024.06.20~2025.06.19)

생보사, 암 보장 특화상품 ‘업계 최초’ 전쟁

포화상태 암보험 신상품 잇따라
한화, ‘암 주요 치료비’ 10년 보장
삼성, 항암 후 각종질병·재해까지
미래에셋, 단일유전자 검사 보장

생명보험사들이 암 보장을 확대한
상품 및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업계
최초·유일 보장’이란 타이틀을 내세우
면서 포화 상태인 암보험에 새로운 전
운이 감돌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1일 ‘시그니처 암치료비보험’을
출시했다. 업계 암보험 트렌드인 ‘암주
요치료비’ 보장을 업계 수준보다 한 단
계 업그레이드한 신상품이란 평가다.

‘암주요치료’란 고객이 암 진단 후
▲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
선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한화생
명은 암주요치료비의 지급보장기간을
업계 최초로 10년(타사 5년)으로 확대
해 전이암과 재발암까지 대비할 수 있
게 했다. 지급보장기간과 최대지급금
액도 2배로 확대·증대됐다.

이 상품의 주요 특약은 ‘암주요치료
보장특약’과 ‘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



생명보험업계가 암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유투이미지

지원특약’으로 나뉜다. 한화생명은 해
당 특약으로 암주요치료비로 10년 동
안 최대 12억원을 보장한다. 암주요치
료보장특약과 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
지원특약은 각각 최대 2억원, 10억원을
지급한다.

NH농협생명도 한화생명에게 이어 ‘암
플러스NH치료보험’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암 진단 확정 이후 10년 동안 보
장하는 조건은 비슷하나 최대 보장금
액이 10억원으로 한화생명(12억원)보
다 낮다. 대신 NH농협생명은 실손의
료비처럼 매년 최대 1억원씩 10년 동안
보장하는 새로운 컨셉의 암보험이라고
강조했다. 진단금 1회 지급 후 소멸하

는 기존 암보험과 달리 매년 보장금액
이 최대 1억원씩 리필 보장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윤해진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암
플러스NH치료보험은 1회성 진단보험
금으로 끝나는 기존 암상품과 달리 암
치료 보장에 최적화된 상품으로 매년
증가하는 암치료비에 대비하기에 최적
인 암보험”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18일부터 암 치료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한 ‘다(多)모는 건강
보험’ 필요한 보장만 ‘썩썩 S3’을 판매한
다. 특히 다양한 특약으로 각종 질병의
종합적인 보장을 제공해 삼성생명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삼성생명은 암 치료뿐만 아니라 업계
최초로 항암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질
병·재해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항
암약물·방사선치료후72대질병및재해보
장’ 특약은 업계 최초 항암치료후 발생
가능한 72대 질병 및 재해를 보장한다.

미래에셋생명은 항암치료 전후에 필
요한 진단 및 부작용 치료 특약을 신설
했다. 해당 특약은 ‘급여 비유전성유전
자검사보장특약’, ‘급여 특정항암부작
용치료약제보장특약’으로 생명보험협

회로부터 각각 3개월, 6개월 배타적 사
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혁
신성이 높은 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
사에 해당 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 판매
할 권리를 주는 제도다.

차세대 비유전자 검사에 대해 기존
NGS 유전자 패널 검사뿐 아니라 업계
최초로 단일유전자 검사도 보장한다.
NGS 유전자 패널 검사의 본인부담률
이 지난해 12월 기준 50%에서 80%로
상향하면서 단일유전자 검사의 현장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래에셋생
명은 이번 특약 신설로 수요가 증가할
단일유전자 검사를 보장하면서 보장
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래에셋생명은 “개인별 환자의 유
전자 변형을 확인해 최적의 치료 방법
을 찾는 차세대 비유전자 검사 시 기존
NGS 유전자 패널 검사뿐 아니라 업계
최초로 단일유전자 검사에 대한 보장
도 받을 수 있다”며 “일부 암종의 경우
시간과 경제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단일유전자 검사의 현장 활용도가 높
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장 공백을 채
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KB손해보험

희망퇴직 실시 건강검진비 등 인생 2막 지원

KB손해보험이 3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KB손해보험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에 적합한 인력 구조를 통해 ‘고객
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간
다’는 기업가치를 실현하고 직원에게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희망퇴직은
오는 19일부터 희망자를 접수 받아 7월
31일자로 퇴직 발령 예정이다.

지난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3년 만
에 실시하는 이번 희망퇴직으로 KB손
해보험은 새로운 인재를 채용해 조직
에 활력을 불어 넣고, 젊고 역동적인 환
경으로 ‘변화’와 ‘혁신’의 기반을 만들
어 나갈 예정이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만 45세 이
상 및 근속연수 10년 이상 직원 ▲근속
연수 20년 이상 직원인 경우다. 임금피
크제 기진입자 및 예정자도 포함된다.
희망퇴직 조건은 월급여(연급여의 1/
12)의 최대 36개월 분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로 생활안정자
금, 전직지원금 또는 학자금, 본인 및
배우자 건강검진비 지급과 희망에 따
라 재고용(계약직)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고용(계약직) 프로그램은 회사 근
무 경험을 토대로 도전의식을 갖고 성
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재고용 예정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인력구조의
고령화, 고직급화로 역동성이 낮아지고
직원 개인의 동기부여가 약화되어 경쟁
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활기
있는 인력구조를 위해서 희망퇴직을 진
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 1면 ‘수도권 주택 2만가구...’서 계속

공공매입임대 주택 하반기 5.4만호 공급

최 부총리는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
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
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를 확대해 정비사업
장의 착공·준공 지연도 최소화해 나가
겠다”고 전했다.

부동산 PF 정상화도 꾀한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는 정상 사
업장에 총 24조원의 PF대출 보증이 집
행되는 등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신
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나가고 있다”
고 설명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
급을 가속화한다. 그는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
만4000호를 올해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며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
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
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kdh@

수수료 부담 vs 편의성 증대... ‘보험료 카드납’ 대립각

〈보험업계〉

〈카드업계〉

野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거절 보험사 처벌 여부도 포함돼
보험-카드 대립 속 협업도 잇따라

22대 국회에서 보험료카드납 의무화
가 추진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정문 더
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국회
에서는 보험료 카드납을 거절하는 보
험사의 처벌 여부도 포함했다. 보험계
약자의 지급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현재 해당 법안은 위원회 심
사 단계에 있다.

보험업계는 난색을 표명했다. 보험
료 카드납 의무화를 시행하면 수수료부
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 현재 보험사가
카드사에 내야 하는 가맹점수수료는 2
~2.3%선이다. 원수보험료 10만원을 거
뒀다면 수수료가 최대 2300원이다.

소비자 부담도 커질 것이라 분석이
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기
준 생보사가 신용카드로 납부받은 보
험료 잔액은 9056억원이다. 자동이체



챗.GPT에 의해 생성된 ‘신용카드, 보험료 납부’ 이미지

잔액(16조358억원)의 5.64%를 차지하
다. 이어 손보사의 자동이체 대비 카드
납 잔액 비중은 17.39%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
납 비중이 높아지면 수수료를 만큼 손
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 된다”며
“보험료 카드납은 금융상품을 신용으
로 구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과
현금을 신용카드로 사는 것과 다를 것
이 없다”고 했다.

수수료율을 두고 ‘대립각’이 있지만
카드업계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다. 연 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에 적용
하는 기준을 일괄적용했을 뿐 보험사
에만 별도의 수수료율을 책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카드납 의무화를
수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카드 업계가 팽팽한 대립구도
지만 ‘각자도생’ 분위기다. 개별사간
제휴를 통해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속도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는 제
휴 카드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최근 보험사와 카드사의 협업이 이
뤄진 곳은 DB손해보험과 우리카드다.
중대재해배상보험 비대면 플랫폼을 공
개했다. 우리카드 기업카드로 보험료
를 납부하면 포인트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도 보험업
계와 힘을 합쳤다. 삼성카드는 ‘삼성 i
D VITA 카드’를 출시했다. 의료비와
헬스, 뷰티 영역에서 20% 할인을 적용
하고 보험료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매
월 보험료를 1만원씩 아낄 수 있다. 롯
데카드는 라이나생명과 메리츠화재와
손을 잡았다. ‘보험앤로카 시리즈 2종’
출시를 발표했다. 전월 실적에 따라 보
험료를 최대 2만5000원 할인한다.

한편 지난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보
험료 카드납 의무화 관련 보험업법 개
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8년간 계류법
안에 머물다 파기된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업계간 관련 상
품을 공격적으로 출시하는 흐름이고
제휴확대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며 “입
법을 하더라도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분석을 선행해야 한
다”고 말했다.

/김정선 기자 kimsan119@

2만건 육박 ‘전세사기’ 피해... 3억 미만·청년층 집중

지난달 1496건 피해자 등으로 가결
수도권 60.7%, 다세대 31.9% 달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에 피해
가 집중됐으며, 대부분 임차보증금이
3억원 미만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를 열어 총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고 18일 밝혔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
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적으로 총 1
만9621건이다. 긴급경·공매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이며,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내국인이 98.4%
를 차지했다. 대부분 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으며, 수도권외 비중이 60.7%에
달했다.

주택 유형은 주로 다세대주택
(31.9%)과 오피스텔(20.9%), 다가구
(18.0%)에 거주했고, 아파트 비중도

14.5%로 낮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40
세 미만 청년층의 비중이 73.64%에 달
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
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
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을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잘 나가는 'AI 폴더블폰'... 삼성, 세계 1위 수성 '청신호'

갤럭시 Z폴드6·플립6 흥행가도 전작대비 인도 사전판매량 40% ↑ 갤럭시 링, 美 초도 물량 완판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삼성스터오 홍대에 마련된 체험공간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방문객들이 갤럭시 Z 폴드6·플립6, 갤럭시 워치 울트라, 갤럭시 링 등 신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스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 폰(Z폴드6·Z플립6)과 초소형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링이 글로벌 시장에서 조기 완판 행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도에서는 사전판매량이 전작보다 40% 증가한 데 이어 갤럭시링은 미국에서 사전 판매 6일 만에 모두 팔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슬하게 지키고 있던 1위 자리를 견고히 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삼성전자 인도법인 뉴스룸에 따르면, 지난 10일 사전판매를 시작한 갤럭시 폴더블폰6 사전판매량이 전작보다 40% 증가했다. 이는 인도에서 판매된 삼성 폴더블폰 시리즈 중 최고치다.

인도 시장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삼성전자의 전체 흥행 지표로도 볼 수 있다. 인도 시장은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 2위로 규모 뿐만 아니라 매년 두자릿수의 시장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

문이다.

이에 삼성전자가 전작 대비 10% 이상 높게 설정한 폴더블폰6 판매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2024(Galaxy Unpacked 2024)' 행사를 열고 폴더블 폼팩터와 갤럭시 AI를 결합한 '갤럭시 Z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를 전격 공개했다. 최초 AI폴더블폰인 동시에 갤럭시

시 S24에 이은 삼성전자의 두 번째 AI 스마트폰이기도 하다. Z폴드, 플립5와 비교해 부피와 무게는 줄고 내구성은 강화됐지만 전작을 뛰어넘는 AI 기능을 자랑한다.

특히 삼성전자가 최초로 내놓은 초소형 컴팩트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링'은 조기 완판됐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준비한 갤럭시 링 초도 물량은 사전 판매 시작 6일 만에 소진됐다. 국내

에서는 골드 색상이 완판됐다. 이밖에도 사전 판매를 시작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준수한 초반 성적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점은 이번 신제품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입지를 좌우할 것이라 전망이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물론 애플이 폴더블 폰 개발에 착수하면서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맹추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8%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전년동기대비 3%포인트(p) 줄었다. 같은기간 애플은 16% 점유율로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4%p에서 2%p로 줄였다.

최근 애플은 폴더블폰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폴더블 관련 특허를 신청한만큼 업계에선 애플이 내년에는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가성비만 앞세우던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최근 기술력까지 앞세우며 시장을 선점하는 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의 이번 신제품이 흥행을 이어 간다면 올해 하반기 세계 1위 자리를 견고히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강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언팩 행사의 시사점은 스마트폰 업황 회복과 동시에 갤럭시 제품 시장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인 전망"이라 "2024년 폴더블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은 44%로 2024년 2620만대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23년 기준 삼성전자 52%, 중화권 업체들 40% 등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벤더 폴더블 출시 본격화에 따른 시장 입지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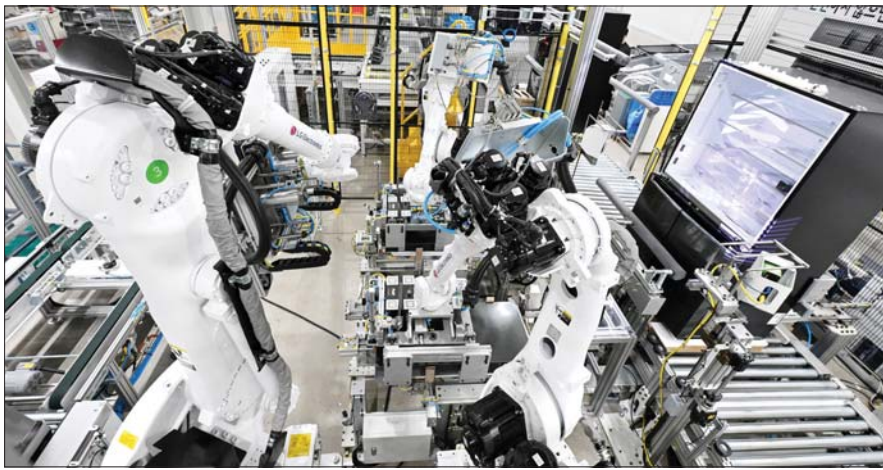
반면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내년까지 1위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김광수 LS증권 연구원은 "현재 갤럭시 링은 스마트폰 판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우선 제품이 출시된 이후 갤럭시 링이 갤럭시 시워치에 버금가는 UX를 보유한다면 스마트폰 판매에 더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G전자, 스마트팩토리 사업 박차... "2030년 조 단위 매출 목표"

66년간 데이터·노하우 축적 AI·DX 접목 등 솔루션 고도화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이 적용된 경남 창원 LG스마트파크 냉장고 생산라인의 모습. /LG전자

LG전자가 지난 66년간 축적해 온 제조·생산 데이터와 노하우에 AI(인공지능), DX(디지털전환) 등을 접목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사업에 속도를 낸다. 오는 2030년까지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사업의 외판(그룹 계열사 제외) 매출을 조 단위 이상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LG전자는 올 초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LG그룹 계열사들의 생산·제조경쟁력 강화를 주도하고 있는 생산기술원이 그간 진행해 온 생산 컨설팅, 장비 및 생산운영시스템 개발, 생산기술 인력 육성 등의 스마트팩토리 구축·운영 노하우와 기술력을 외부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원년에 해당하는 첫 해이지만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생산기술원이 LG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외부 업체에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수주 규모는 2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요 고객사는 이차전지 제조업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물류업체 등이다. 향후에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F&B(식품료) 등 공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산업군으로 적극적으로 진입하며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제품(HW) 중심이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 무형의 영역을 결합해 미래 지향적 구조로 바꿀 방침이다. 이 같은 솔루션 사업은 기업간거래(B2B)의 고속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G전자는 지난 66년간의 공장 설계·구축·운영을 통해 대대적인 제조 데이터와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최근

10년간 축적하고 있는 제조·생산 데이터의 양만 770테라바이트(TB)에 달한다.

고화질 영화 19만7000여 편을 저장하는 용량과 유사한 수준이다. 스마트팩토리 구성에 필요한 다양한 핵심 생산요소기술도 사업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LG전자 생산기술원이 출원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관련 특허는 1000건을 넘어선다.

LG전자는 이러한 제조 데이터와 노하우, 글로벌 최고 수준의 생산요소기술에 AI와 DX를 연계,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LG전자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은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을 활용하는 생산시스템 설계·모니터링·운영 ▲빅데이터 및 생성형 AI 기반 설비·공정관리, 산업안전, 품질검사 ▲산업용 로봇 등을 모두 포함한다. /구남영 기자



유튜브 영상 제공 YouTube

현대모비스 PBV 특화 에어백 첫 공개

'도어 장착형·자립형' 2종 개발

현대모비스가 목적기반(PBV)에 특화된 에어백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모비스는 18일 차량 내부가 상대적으로 넓고 다채로운 디자인이 가능한 PBV에 특화된 '도어 장착형 커튼 에어백'과 '자립형 동승석 에어백'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두 기술 모두 충돌이나 전복 사고 시 탑승객의 이탈을 방지하거나 상해를 대폭 저감시킨다.

아울러 현대모비스는 PBV용 에어백의 확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시트 위치나 탑승객의 방향이 자유로운 특성에 맞춰 고객사 실내디자인에 맞춘 다양한 에어백도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LS에코에너지 상반기 사상 최대실적 달성

매출 4125억, 영업이익 244억

LS에코에너지가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LS에코에너지는 올 상반기 매출 4125억원, 영업이익 244억원, 순이익 210억원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3637억 원에서 13% 증가했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12억원과 12억원에서 118%와 1627% 증가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지난 2023년 연간 실적과 비슷한 수준으로 역대 분기 및 반기 최대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각각 5.9%와 5.1%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CC, 인재·노선 확보 분주... 하반기 '힐힐' 난다

장거리 노선 사업 영역 확장 승무원 등 신규 채용 줄이어

항공기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항공사들의 대규모 채용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저비용항공사들이 앞다퉈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줄어들었던 여행객 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항공 인력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19일까지 신입 부기장을 모집한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구체적인 채용 인원은 밝히지 않았지만 두 자릿수 규모라고 전했다. 하반기 유럽행 장거리 노선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만큼 대규모 인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에어부산은 캐빈승무원, 운항 승무원, 정비사 등 세 직군에서 80여명을 신규 채용했다. 중국 노선 탑승객이 지난해 동기 대비 350% 늘었으며, 올

해 하반기 부산~발리 노선에 취항하므로 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6월 객실 승무원 100여명 채용에 나선데 이어 경력직 기장·부기장을 각각 30명씩 총 60명 채용한다. 에어프레미아 또한 신규 항공기 도입이 예정돼 있어 승무원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5월부터 채용에 나서 신입 객실 승무원 46명을 채용했

다. 이미 158시간의 교육과 훈련을 마치고 현장에 투입한 상태다. 2024년 6월 11호기부터 7월 12·13호기 등 새로운 기체 도입이 줄지어 있는 만큼 일찍이 신규 채용에 나선 것이다.

한국항공협회 항공일자리취업지원센터 강경국 팀장은 "항공업계 채용이 많다보니 청년들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며 "많은 대학생들이 항공 취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도전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 이전 2018~2019년 때 보다는 채용 시장 분위기가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백대성 수습기자 iunmcs@

가격·기술, 친환경까지... 국내 車업계, 'D SUV' 경쟁 치열

현대차·기아에 르노·KGM 도전장
르노코리아, 4년 만에 신형 SUV
'그랑 콜레오스' 성능·연비 등 우수
KGM, 내달 액티언 가격 등 공개

국내 완성차 업계가 올 하반기 D 세그먼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싼타페, 쏠렌토가 지배하고 있는 D 세그먼트 시장에 르노코리아와 KGM이 도전장을 내민다. 특히 르노코리아가 그랑 콜레오스의 가격을 공개하면서 KGM의 액티언 가격에 대한 업계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가 2020년 이후 4년 만에 새롭게 출시한 신차 그랑 콜레오스는 현대차 싼타페와 기아 쏠렌토와 비슷한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그랑 콜레오스 가솔린 터보 모델의 시작 가격은 3495만원으로 책정됐으며 E-Tech 하이브리드 최상위 트림인 에스프리 알핀의 풀옵션 모델은 4567만원(친환경차 인증 완료 후 세제 혜택 적용시)이다.

그랑 콜레오스는 가솔린 터보 2WD, 가솔린 터보 4WD, E-Tech 하이브리드



르노코리아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등 세 종의 파워트레인으로 구성됐다.

가솔린 터보 2WD 모델의 경우 트림별로 테크노 3495만원, 아이코닉 3860만원, 에스프리 알핀 3995만원이다. 4WD 모델은 최상위 트림 에스프리 알핀으로만 운영되며 가격은 4345만원이다.

E-Tech 하이브리드는 세제 혜택 적용시 테크노 3777만원, 아이코닉 4152만원, 에스프리 알핀 4352만원에 판매된다. 세제 혜택 적용을 위한 친환경차 인증은 8월 중 완료 예정이다.

이같은 가격 책정은 싼타페와 쏠렌토 가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랑 콜레오스 가솔린 터보 시작가격은 싼타페 가솔린 터보(3546만원), 쏠렌토 가솔린 터보(3506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 시작가격은 싼타페 하이브리드(3888만원), 쏠렌토 하이브리드(3786만원) 등 경

쟁차종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됐다.

다만 그랑 콜레오스가 신형 엔진과 최신 기술을 대거 적용했다는 점에서 가격 경쟁력은 경쟁모델보다 앞선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는 동급 최고 수준인 245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발휘한다. 100kW 구동 전기 모터와 60kW 고전압 시동 모터로 이루어진 듀얼 모터 시스템이 동급 최대 용량의 1.64kWh 배터리를 만나, 도심 구간에서 전체 주행거리의 최대 75%까지 전기 모드 주행이 가능하다. 또 다목적 D SUV답게 고속 주행 구간에서도 15.8km/L(테크노 트림 기준)로 동급 최상의 연비 효율을 발휘한다.

그랑 콜레오스는 모든 차량에 자율주행 레벨 2 수준의 주행 보조 기능을 비롯해 다양한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기



기아 더 뉴 쏠렌토.

본 사양으로 탑재했다. 실시간 티맵 내비게이션과 음성인식 시스템 누구오도도 기본 제공한다.

안전 설계에 초점을 맞춘 그랑 콜레오스의 차체는 초고강도 '핫 프레스 포밍(HPF, 고온 프레스 성형)' 부품을 총 24개 적용했다. 그랑 콜레오스는 동급 경쟁 모델 대비 가장 긴 2820mm의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넉넉한 뒷좌석 공간과 무릎 공간을 확보한 점도 특징이다.

그랑 콜레오스를 통해 처음 선보이는 'openR(오픈알) 파노라마 스크린'도 기본 사양으로 제공한다. openR 파노라마 스크린은 세 개의 12.3인치 스크린이 모두 독립적으로 기능하면서도 뛰어난 연결성을 갖고 있다.

르노코리아가 그랑 콜레오스의 가격을 공개하면서 KGM도 가격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KGM의 중형

SUV 액티언은 15일 사전 예약 하루만에 1만6133대의 예약이 이뤄졌다. 하지만 사전 계약과 달리 예약이라는 점에서 계약금 등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격 공개 후 실구매까지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KGM은 오는 8월 중순에 액티언 가격과 제품 정보 등을 공개한다. 이후 사전 예약을 사전 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D SUV 시장은 싼타페와 쏠렌토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쉽지 않은 시장이다"면서 "다만 QM6가 출시 후 중형 SUV 시장에서 오랜기간 인기 모델로 주목받은 만큼 프랑스 디자인 감성과 첨단 기술을 조합한 그랑 콜레오스가 합리적인 가격을 내놓은 만큼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 英 지식그래프기술 스타트업 인수

온디바이스AI 시장 진입 속도 고도화
데이터 통합·연결해 사용자 이해 높여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 그래프' 기술을 보유한 영국 스타트업을 인수했다. 이를 통해 온디바이스AI 시장 진입에 속도를 고도화하고 차별화된 개인화 인공지능(AI)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 인수 계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지식 그래프'는 데이터를 사람의 지식 기억 및 회상 방식과 유사하게 저장, 처리하는 기술로, 더 정교하고 개인화된 AI(인공지능)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이달 16일(영국 현지 기준) 영국 스타트업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Oxford Semantic Technologies)'와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가 보유한 지식 그래프 기술은 관련 정보들을 서로 연결된 그래프 형태로 표현해준다. 데이터를 통합하고 연결해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빠른 정보 검색과 추론을 지원한다.

지식 그래프 기술은 실생활에 사용되는 기기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지식 그래프로 변환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연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기술로 평가 받는다.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는 데이터 처리 최적화 및 고도의 추론이 가능한 지식 그래프 기술을 개발해 이를 성공적으로 상용화했다. 현재 유럽 및 북미 지역의 금융, 제조,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 회사들과 협력 중이다.

피터 크로커(Peter Crocker)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 CEO는

"삼성전자와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며 "삼성전자의 사용자 경험과 데이터, 당사의 지식 그래프 기술과 역량을 결합하여 앞으로 더욱 진보된 개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와 여러 프로젝트를 협업하며 각각으로 기술력을 검증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더욱 진화된 '개인화 지식 그래프(Personal Knowledge Graph)' 핵심 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화 지식 그래프' 기술은 서비스와 앱별로 분산돼 있던 정보와 맥락을 연결해 마치 나만을 위한 기기를 사용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하면 할수록 나를 더욱 잘 이해하는 기기로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효성티앤에스, 최방섭 신임 대표이사 선임

삼성전자 출신... 오늘부터 업무 시작

효성티앤에스가 삼성전자 출신의 최방섭 대표이사를 공식 선임했다.

효성티앤에스는 서울 강남구 서초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최방섭 대표이사를 공식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최방섭 신임 대표이사는 오는 19일부터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최 대표이는 서울대 기계설계공학과를 졸업 후 지난 1987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개발, 마케팅, 영업, 전략 등 다양한 경험을 거쳐 2022년 삼성전자 Mobile eXperience 사업의 글로벌 전략마케팅실장을 역임했다.

특히 최 대표이는 삼성전자 유럽 영업 총괄을 맡아 유럽 TV시장 1위를 달성했다. 미국법인 모바일 부문장과 Mobile eXperience 전략마케팅실장 역임 당시에는 전세계 삼성 스마트폰의 매출과 시장점유율 확대를 주도했다.



18일 효성티앤에스 수석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선임된 최방섭 신임 대표. /효성

효성티앤에스는 최 대표의 풍부한 경험과 글로벌 마인드를 기반으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대표이는 "효성티앤에스가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부 소통 증진을 통한 역량강화 및 VOC 기반의 혁신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 RSU 확대 시행

주요 계열사 팀장 1116명 대상

한화그룹이 대표이사과 임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RSU(양도제한 조건부주식) 제도를 주요 계열사 팀장까지 확대 시행한다. 2020년 책임경영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국내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RSU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지 4년만이다.

18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이번 RSU 제도는 (주)한화·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한화솔루션 5개 주요 계열사의 팀장 1116명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다. 기존 RSU와는 일부 차이점이 있다. 임원 RSU의 경우 성과급을 폐지하고 RSU를 부여하고 있지만,

팀장의 경우 기존에 받고 있는 팀장 수당 대신 '리더인센티브'라는 새로운 RSU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팀장들도 임원들과 같이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전략 실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가득 기간도 기존 5~10년 보다는 짧은 3년으로 설정했으며, 부여액의 50%는 주식, 50%는 주기연동현금으로 지급되는 건 임원 RSU 제도와 동일하다. /양성운 기자

SKT, 휴가철·올림픽 기간 품질 집중관리

내달 31일까지 특별 소통 대책기간

SK텔레콤은 여름 휴가철과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안정적 서비스 품질 제공을 위해 이동통신 품질 집중 관리 나선다.

SKT는 이달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를 특별 소통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동통신 품질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파리 올림픽 개최로 데이터 사용량이 평년보다 늘어나는 것은 물론 해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로밍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SKT는 8월 말까지 SK브로드밴드, SK오앤에스, 홈엔서비스 등 관계사와 함께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하며 통신 서비스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놀랄 만 큼 다 양 한 콘 텐 츠
볼 수 록 빠 저 드 는 초 고 화 질 지
몰 입 감 높 이 는 사 운 드 까 지

똑같은 품질!

우리 집 통신비 아껴주는

알뜰한 가격!

화질·음질UP | 합리적 가격 | 다양한OTT



TV를 즐기는 새로운 기준!

Hello tv Pro

헬로tv Pro 런칭기념

기본료 할인 EVENT 진행중!

※ 24년 7월 31일까지 가입 완료한 고객에게 해당됩니다.

1:1 실시간 상담톡
바로가기



상담문의 1855-1094

중기부, 외국인 유학생으로 中企 제조현장 인력난 타개

오영주 장관 주재 간담회 개최
대학 관계자, 유학생 취직 위해
제조 中企 정보, 접근성 등 강조
산학연계형 교육확대 등 협력 약속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 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국내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오전 경기 안산에 있는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오영주 장관 주재로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 확대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오 장관 외에도 법무부 심우정 차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희수 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조한교 인력성장본부장, 한국공학대 황수성 총장, 충북보건과학대 박용석 총장 그리고 외국인 인력 채용기업,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 E-7 전문비자로 근로중인 외국인 1명 등이 참석했다.

현재 중기부는 한국어 능력 등이 우수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제조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난을 타개할 대안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6번째)이 18일 경기 시흥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열린 '제조 중소기업의 외국인 유학생 활용 확대 방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외국인 유학생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일자리 매칭플랫폼 구축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확대 ▲지역별 유학생 채용 매칭센터 신설 방안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공급방안 ▲국내 유학생 활용기반 고도화(비자발급 및 재직지원 등)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제조 중소기업들은 인력 부족에 따른 구인난, 유학생 채용에 대한 정보 부족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다. 또 국내 유학생이 제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나왔다.

동석한 대학 관계자들은 국내 중소기업에 우수한 국내 유학생들이 취직하기 위해선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전교육의

체계화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과 대학간의 보다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과 대학(한국공학대, 충북보건과학대)은 중소기업 내 유학생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산학연계형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한 유학생을 중소기업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협력키로 약

속했다.

오 장관은 "많은 제조 중소기업이 당면한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내 유학생 활용 방안이 제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기준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은 전체 평균이 2.8%이고 제조 중소기업은 이보다 높은 3.3%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 약 17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 가운데 35.4%가 국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유학생 간 구인·구직 정보의 미스매칭, 비자 발급 어려움 등으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삼성전자 "하반기부터 CXL 시장 열릴 것"

(빠르게 연결해서 연산한다)

다양한 장치 간 연결 효율화로
소프트웨어 복잡성·비용 줄여
D램 용량·성능 확장 한계 개선

"올 하반기부터 CXL(Compute Express Link) 시장이 열릴 것입니다."

최장석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신사업기획팀장(사진)이 18일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열린 '삼성전자 CXL 솔루션 설명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CXL은 '빠르게 연결해서 연산한다'는 의미로 CPU, GPU, 스토리지 등 다양한 장치를 효율적으로 연결해 빠르게 연산처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차세대 인터페이스다. CPU 메모리 공간과 연결된 장치의 메모리 간에 메모리 일관성을 유지하여 지연 시간을 줄이고 소프트웨어 스택 복잡성을 줄이며 전체 시스템 비용을 낮추는 리소스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최 상무는 "각 장치는 빨리 동작해야 하기 때문에 CPU 주위에 있어야 하지만 SSD는 떨어져 있어도 된다"며 "이



를 감안해 'SSD 자리에 D램을 꽂으면 어떻게'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돼 구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XL의 중요성은 D램의 용량 및 성능 확장 한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AI의 데이터 처리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D램은 한정적인 범위에서만 확장 가능하다. 반면 CXL D램 솔루션은 D램과 공존하면서 시스템 내 대역폭과 용량을 크게 확장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장치 간 연결을 효율화 시키는 CXL의 역할 때문이다. 설치 또한 간편하다. CXL은 기존 서버에서 SSD를 꽂던 자리에 그대로 CMM-D를 꽂으면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업계 최초로 '메모리 풀링(Pooling)' 기능을 지원하는 'CXL 2.0 D램'을 공개했다. 메모리 풀링은 서버 플랫폼에서 다수의 CXL 메모리를 묶어 풀(Pool)을 만들고, 각각의 호스트가 풀에서 메모리를 필요한

만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CXL 메모리의 전 용량을 유휴 영역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데이터 전송 병목현상도 줄일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21년 5월 업계 최초로 CXL 기반 D램 제품 개발을 시작했고 이후 최고 용량 512GB CMM-D 개발, 업계 최초 CMM-D 2.0 개발 등에 성공했다. 지난 3월 글로벌 반도체 학회 '멤콘 2024'에서 CXL 기반 D램인 CMM-D, D램과 낸드를 함께 사용하는 CMM-H(Hybrid), 메모리 풀링 솔루션 CMM-B(Box) 등 다양한 CXL 기반 솔루션을 선보이기도 했다. 올해 2분기엔 CXL 2.0을 지원하는 256GB(기가바이트) CMM-D 제품을 출시하고, 주요 고객들과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최 상무는 "하반기부터 CXL 2.0 기술을 탑재한 CPU가 출시될 예정이어서 시장도 움직이고 있다"며 "이를 기점으로 CXL 시장은 2027~2028년쯤 하키 스틱 모양처럼 급격하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서현 기자 seoh@

금투협, 태국거래소와 금융투자 협력 논의

韓 자본시장 노하우 벤치마킹

금융투자협회는 서유석 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키티퐁 우라피파나퐁(Kitipong Urapeepatanapong) 태국 증권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양국의 금융투자 산업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태국거래소 대표단은 태국 정부의 청정에너지 관련 기업 성장 활성화 및 증권시장 안정화 조치에 따른 초단타 매매와 공매도 제한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자본시장에서의 자율규제 역할과 협회와 시장 지원 활동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벤치마킹했다.

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약 4630억달러(639조원)로 아세안(ASEAN)에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시장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18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태국증권거래소 이사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금융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한-태국 간 자본시장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회원사들이 태국 진출 시 태국거래소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KB자산운용, RISE ETF 순자산 12兆 돌파

'美 대표지수·채권' 성장 견인

KB자산운용이 자사의 RISE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12조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RISE ETF의 순자산은 지난 15일 기준 12조490억원으로 2023년 말(9조7222억원) 대비 약 24% 증가했다.

올해 들어 ETF 수탁고의 성장을 이끈 주요 테마는 '미국 대표지수'와 '채권'이다.

KB자산운용은 현재 국내주식형 32개, 해외주식형 23개, 채권형 26개 등 총 109개 ETF 상품을 운용 중이다. 그중 한국·미국·중국·유럽·홍콩 등 해외 대표지수에 투자하는 ETF 7종은 투자자들로부터 꾸준히 수요가 있다.

미국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미국나스닥100', '미국S&P500' ETF는 올해 수탁고를 5200억원 넘게 불리며 합계 순자산 1조원을 넘어섰다. 이밖에도 KB자산운용은 올해 'RISE 200위클리커

버드콜', 'RISE 버크셔소프트폴리오TO P10' 등의 ETF 상품 9종을 내놨다.

지난 3월 출시한 'RISE 200위클리커 버드콜'은 코스피200의 주간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상품이다. 해당 상품에 1억원을 투자하면 1개월 만에 약 100만원의 분배금을 받을 수 있어 출시 한 달여 만에 순자산 500억원을 돌파했다.

김찬영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연금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대표지수형'은 낮은 보수로 운용하고, '테마형 상품'의 경우 차별화된 테마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전지원 수습기자 jiw13@

전년비 22.2% 늘어... '사상 최대' 결재액 2552.8억달러... 31.6% ↑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달 말 국내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이 1273억 3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말(1041억9000만달러) 보다 22.2% 증가한 사상 최대치다.

결재금액은 2552억 8000만달러로 지난해 말 대비 31.6% 증가했다.

보관금액을 종류별로 보면 외화 주식은 946억 4000만달러로 2023년 말(768억 5000만달러) 대비 23.1% 증가했고, 외화 채권은 326억 9000만달러로 2023년 말(273억 4000만달러)과 비교해 19.6% 늘었다.

상위 5개 시장(미국, 유로시장, 일본, 홍콩, 중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98.3%를 차지했고,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73.6%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외화주식은 미국이 전체 보관규모의 90.7%를 차지했다. 2023년 말(680억 2000만달러)과 비교하면 26.2% 증가했다.

외화주식 보관금액 상위 종목은 모두 미국주식이 차지했다.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순서다.

종류별 외화증권 결재금액은 외화주식이 2058억 4000만달러로 직전 반기(1465억 8000만달러) 대비 40.4% 증가, 외화채권은 494억 4000만달러로 직전 반기(473억 9000만달러) 대비 4.3% 증가했다. /전지원 수습기자

미용부터 헬스케어까지... 제약업계 '의료기기 사업' 출사표

유한양행 성우전자와 업무계약
의료용·미용기기 개발 속도전
광동제약 프리시전바이오 인수 계획
대웅제약 가슴 탈부착 모니터링
심전도 패치 '모비케어' 공급



웨어블 심전도 검사 기기 '모비케어'

/대웅제약

국내 제약 업계가 의료기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의료기기를 화장품, 디지털 헬스케어 등과 접목해 다양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유한양행은 지난 17일 성우전자와 성장사업을 위한 업무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유한양행의 더마 화장품 제품에 성우전자의 제조 기술을 적용한 의료·미용기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유한양행은 앞서 지난 2023년 비건 선케어 브랜드 '딘시'를 공개하는 등 뷰티 사업에 손을 뻗어 왔다. 제약사가 만드는 신뢰할 수 있는 효능의 건강한 부

티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딘시는 현재 국내 대표 뷰티 시장인 CJ올리브영에 입점하고, 롯데홈쇼핑이 만든 인기 캐릭터 벨리곰과 협업하는 등 브랜드 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성우전자는 올해 1월 의료용 기기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등을 정관에 추가했다. 성우전자가 지난 5월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성우전자는 피부

노화 방지 및 미용에 사용하는 필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를 사업 기회로 보고 있다.

성우전자는 오는 2026년 필터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약 40억, 2025년 16억, 2026년 38억원 등을 지속 투자한다.

이처럼 유한양행과 성우전자가 뷰티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코스온의 사업 고도화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ODM(제조자 개발생산) 기업인 코스온은 지난 2023년 12월 8일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고, 유한양행은 올해 1월과 2월에 진행된 제3차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받았다. 그 결과, 유한양행은 올해 1분기 기준, 코스온에 대한 지분을 32.5%까지 확대하게 됐다.

이밖에 유한양행은 동물용 의료기기 사업도 펼쳤다. 유한양행은 지난 2023년 의약품 개발 전문기업 플루토와 협업해 '애니콘주'를 출시했다. 애니콘주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을 함유해 골관절염이 있는 반려동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사제'다.

한편 광동제약은 체외진단기기 기업과 맞손을 잡고 신사업에 나섰다. 광동제약은 지난 2일 프리시전바이오의 최대 주주인 아이센스 등이 보유한 주식 29.7%를 인수할 계획이며 인수 금액은 약 17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프리시전바이오는 인체·동물용 검사기, 카트리지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체외진단기기 전문기업이다. 광동제약은 질병 조기 진단뿐 아니라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가 국내외 헬스케어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흐름에 따라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의료기기를 활용해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최근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 '모비케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건강검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심전도 검사 솔루션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모비케어'는 가슴에 탈부착하는 기기로, 장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심장 이상까지 조기 발견할 수 있다. 또 부정맥 진단에 필요한 심전도, 심박, 심박 변이, 호흡, 체온, 활동량 등 생체 신호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기기 무게는 19g으로 작고 편리한 것도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중견사 4곳 중 3곳 "하반기 투자계획 없어"

중견련, 기업 412곳 투자전망 조사
'투자' 25% 중 88% '확대·유지'
18%는 투자규모 1000억 이상

중견기업 4곳 중 3곳은 하반기에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수시장 부진, 경기 악화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런 가운데 4곳 중 1곳은 하반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답했다. 투자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 10곳 중 9곳은 상반기에 비해 투자 규모를 확대하거나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중견기업 41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 하반기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 결과'를 18일 내놨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5%는 '투자계획이 없다', 25%는 '투자계획이 있다'고 각각 밝혔다.

투자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 중

88.4%는 상반기 대비 투자 규모를 확대(45.7%)하거나 유지(42.7%)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하반기 투자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 17.8%의 투자 규모는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를 하되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11.6%에 그쳤다.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중견기업은 '주력사업 확장(36.2%)'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노후설비 개선·교체(23.4%) ▲신사업 진출(19.1%) ▲해외 시장 진출(12.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상반기 대비 투자 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중견기업들은 ▲내수시장 부진(33.3%) ▲경기 악화(25.0%) ▲수출 부진(8.4%) ▲고금리, 자금조달 애로(8.3%) 등을 요인으로 지목했다. 25%는 상반기에 투자를 완료했다고 응답했다.

투자 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내부자

금 활용(52.8%)', '금융권 차입(35.8%)', '정책금융 활용(5.7%)', '주식, 회사채 발행(3.8%)', '기타(1.9%)' 순으로 확인됐다.

중견기업인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R&D·설비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세제 개선(34.0%)'과 '금리인하(27.4%)', '물가안정 및 내수 활성화(18.9%)' 등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최근 생산성 하락, 미래 먹거리 산업 부재, 설비투자 둔화 등은 인구 감소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면서 "정부 정책 기조인 역동경제의 성공을 위해 성장사다리의 중심인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왼쪽 4번째부터)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모리 히로시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장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쪽 단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한-일 中企 교류·협력 확대

日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맞손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 중소기업계와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한다.

중기중앙회는 18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중기중앙회에선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권혁홍 수석부회장, 김동우·김석원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에선 모리 히로시 회장, 사토 테츠야 전무, 오이가와 마사루 사무이사 등이 함께 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업종별 협동조합·협회 등 중소기업 단체간 인적·기술 교류 확대 ▲공급망 발전을 위

한 중소기업간 교류지원 ▲중소기업의 인력난·경영여로 해소를 위한 정책·정보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는 1956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2만 7000여개 중소기업 협·단체와 협회 산하 224만여개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일본 중소기업 대표 단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일 중소기업 경제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매년 1회 한·일 단체 간 정책 포럼 교차 개최를 통해 중소기업이 상호방문 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서틀 경제교류'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기보, 시스템반도체 기업에 2000억 보증

기업 추가육성에 정책역량 집중

기술보증기금이 시스템반도체 기업 추가 육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6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체계를 새롭게 마련했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반도체 분야에 약 2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기보는 최근 정부의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에 맞춰 중소벤처기업부 김봉덕 벤처정책관과 함께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시스템반도체 벤처기업 아이엔디바이스를 방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정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봉덕 벤처정책관과 기보 직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시스템반도체 기업 아이엔디바이스를 방문해 회사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기보

아이엔디바이스는 서울대 전기공학과 석사출신 박기태 대표가 2008년 삼성전자와 페어차일드 반도체 출신인력들과 함께 설립한 시스템반도체 패키징 기업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업데이트

게임사인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카카오게임즈는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에 신규 의상 육성 우마무스메와 스토리 이벤트를 업데이트했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게임즈에 따르면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는 실존하는 경주마의 이름과 영혼을 이어받은 캐릭터를 육성하고 레이스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쟁하는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이번 업데이트에는 신규 의상 육성 우마무스메 '메지로 아르담'과 '사쿠라 치요노 오'가 공개됐다. 이들은 스토리 행사 '그러니 그대, 사랑스럽네'에 등장하는 캐릭터다.

/안재선 수습기자 wotjs4187@

소상공인 해외 온라인판로 개척 돕는다

중기유통센터,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소상공인의 해외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글로벌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18일 중기유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패키지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해외 온라인 판로 개척에 필요한 여러 항목들을 패키지 형태로 통합 지원해 해외쇼핑몰

입점과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상품 기술서, 리스팅이미지 현지 언어 번역 ▲현지어로 제작된 제품 홍보 콘텐츠 ▲해외 소핑몰 입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 상표권 등록, 인증 취득 등 항목 중 1가지를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글로벌 패키지 지원사업'은 연말까지 총 100개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김승호 기자

작년 1인당 가계 순자산 2.4억 부동산 줄고 금융자산 늘었다

통계청,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 전년도 3.1% 대비 증가폭 둔화 '토지자산' 감소세 지속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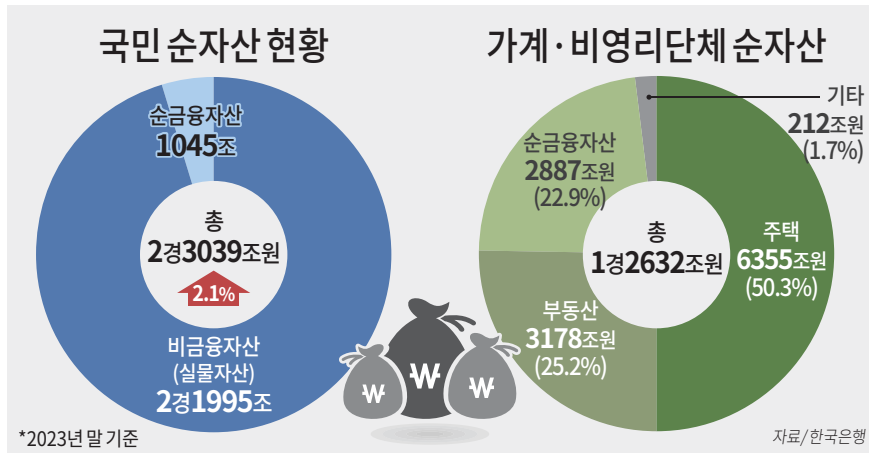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를 의미하는 국민순자산은 2.1% 증가했지만 1년전(3.1%)과 비교해 증가폭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순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영향이다.

1인당 가계 순자산은 2억4427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6% 증가했다. 자산 중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지만 주가 반등으로 금융자산이 늘었다.

18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순자산은 2경3039조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72조원(2.1%) 증가했다. 2022년 증가폭(688조원·3.1%)과 비교하면 증가세는 둔화한 수준이다.

국민대차대조표는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말작성하는 일종의 재무상태표다.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가 이저것 쌓은 자산을 현재 가격으로 평가해 이른바 국부의 규모를 계산한다.

국민순자산의 증가폭이 둔화한 이유



는 비금융자산 중 토지자산의 감소세가 지속된 영향이 컸다.

토지자산은 2022년 1경2132조원에서 2023년 1경2093조원으로 38조원 감소했다. 토지자산은 비금융자산의 55%, 전체 국민순자산의 52%를 차지한다. 토지자산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가격 하락이 자산 증가세를 둔화시켰다는 설명이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1경2632조원으로 1.7% 증가했다. 주택자산(-147조원·-2.3%)을 중심으로 비금융자산이 0.4% 줄었지만, 주가 반등으로 금융자산이 4.7% 늘었다.

순자산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주택이 50.3%로 가장 많았고, 주택외의 부동산이 25.2%, 현금 및 예금이 19.1%, 보

험 및 연금이 11.5%를 차지했다.

주택과 주택외의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 비중은 75.5%다. 우리나라 가계자산을 포함한 국부가 부동산 경기에 좌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가구당 가계 순자산은 5억7855만원으로 1년전(5억7561만원)과 비교해 0.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대차대조표 통계에서는 가계부분만을 따로 추계하지 않기 때문에 가구당 순자산 추정액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 전체 순자산(1경2632조원)을 추계 가구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1인당 가계 순자산은 2억4427만원으로 1년전(2억4039만원)과 비교해 1.6% 증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한식진흥원, 파리올림픽서 한식 체험행사

농식품부, 파리 '코리아하우스'서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2024 파리 올림픽에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코리아 하우스 개관식에서 한식 체험·홍보 행사를 개최한다.

18일 한식진흥원에 따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행사에서는 농식품부가 한식의 품질향상 등을 위해 지정한 파리 지역 우수 한식당 5개소와 CJ제일제당이 젊은 한식셰프 육성사업인 퀴진케이 영셰프 6인이 함께 참여한다.

제철음식과 발효음식을 주제로 직접 개발한 한식 신메뉴 18종을 선보인다. 특히 파리 우수 한식당 순그릴마레, 이도, 종로삼계탕, 맛있다, 삼부자 등 5개소의 대표 음식을 재해석한 박대 타코, 초계탕, 순대 꼬치, 프렌치 잡채, 새우젓 아이올리 편육 등 5가지 메뉴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 올림픽 기간에 대한민국 스포츠 외교를 세계에 알리는 플랫폼인 코리아하우스 누리집을 통해 해외 우수 한



파리 한식당 순그릴마레의 한정식. /한식진흥원

식당 지정제와 한식 요리방법(레시피)을 안내한다. 아울러 한식 소개 책자와 홍보물(리플릿)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한식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파리 올림픽은 전 세계인에게 우수한 한식 문화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앞으로도 스포츠, 컨벤션 등 국제행사를 통해 한식의 다채로운 매력과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차상근 기자 skc8472@

'김영란법' 선물가액 8년만에 상향 논의

권익위 '청탁금지법 현장 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상 선물가액 제한을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선물가액이나 식사비 등의 상한이 현실적 상황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원회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농협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청탁금지법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축수산물 판매 현황 등 민생 현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직접 듣는 자

리여서 사실상 이들 한도 상향을 염두에 둔 수순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이 정한 고품제공상한선은 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 원) 등이다.

청탁금지법 상 한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어서 국회 동의가 없어도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하다.

법 시행 과정에서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다. 특히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결정된 음식물 가액기준 3만 원을 현재까지 고수함에 따라 20여년간의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차상근 기자

한국전력공사 재난관리 우수기관 선정

2018년부터 공공기관 최초 6년 연속
재난대응 역량·대비 훈련 등 우수

한국전력공사는 18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6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부 재난관리평가'는 29개 중앙부처, 66개 공공기관과 243개 지자체 등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단계별 역량을 종합 진단해 '우수·보통·미흡'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 중이다.

한전은 코로나19로 평가를 하지 않았던 2021년(2020년 실적)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6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전력·가스·석유 등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중 최초 사례다.

평가에서 한전은 △기관장·부기관장·실무자 재난대응 역량 △재난대비 훈련 △업무연속성 유지 노력 △실제 재난 대비·대응 추진 정책 등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이준호 한전 안전&영업배전부사장은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 불확실성이 가속화되고 방대한 규모의 설비 운영에 따른 재난 노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재난대응체계를 위해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미래 먹거리 이차전지 개발 올해부터 4년간 468억 투입

환경부, 배터리 순환이용 토론회
재활용 중요성·안전관리 방안 논의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순환이용을 위해 정부와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정부는 올해부터 4년간 468억원을 투입해 관련 연구과제를 시작한다.

환경부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순환이용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기술 및 연구를 공유한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배터리 순환이용의 중요성과 안전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함께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이차전지)'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12개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이차전지는 리튬, 코발트 등 희유금속 함유량이 많아 재활용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나 온실가스 등 환경부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468억원을 투입해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개발 사업(3개 연구과제)'을 착수한다.

3개 연구과제는 △배터리 순환형 설계 △다종 이차전지 해체·분리 △환경부하 저감형 재활용 공정이다. 환경부는 이들 3개 연구과제 사업을 통해 이차전지 순환이용을 향상하고, 환경부하 등 산업계 어려움을 극복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관련 기술개발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업계와 연구기관에서 '재활용-제조 순환고리(에코프로)', '사용후 배터리 순환 경제 정책동향 및 중점과제(KEI)' 등 배터리 순환경제에 대한 성공 사례, 해외 정책·산업 동향에 대한 기초강연을 진행한다. 또 전문가 토의를 통해 세계 선도형 연구개발 추진 현황 등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차전지 산업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이용 활성화와 환경부하를 저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전국한우협회, 홍콩서 팝업스토어 오픈

썸머 비트 페스트 2024서 홍보

전국한우협회가 홍콩 젊음의 거리 환콰이펑에서 열린 '썸머 비트 페스트(Summer Beat Fest) 2024'에 팝업스토어를 오픈하고 한우홍보에 나섰다.

협회는 한우 수입 바이어사인 브라이트존과 홍콩 한우 우수판매점 갈비타운과 협업해 한우 채끝 큐브 스테이크, 한우 탕수육, 한우 버거, 한우 불고기 샌드위치, 한우 잡채 등의 한우 간편식 메뉴를 선보여 큰 인기를 끌었다.

팝업스토어와 연계한 한우 홍보부스에서는 한우 구매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고 퀴즈 이벤트를 통해 한우 이력시스템과 한우농가의 정성이 깃들여 맛과 안정성이 우수한 한우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했다.

홍콩 수출사업은 한우농가 거출금인



홍콩 환콰이펑 Summer Beat Fest 2024의 한우부스 앞에서 한우버거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고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을 활용해 전국한우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에 문화를 입히다'라는 컨셉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중에 홍콩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몽골 등 4개국에 지난해 동기 대비 4.3%증가한 22.6톤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차상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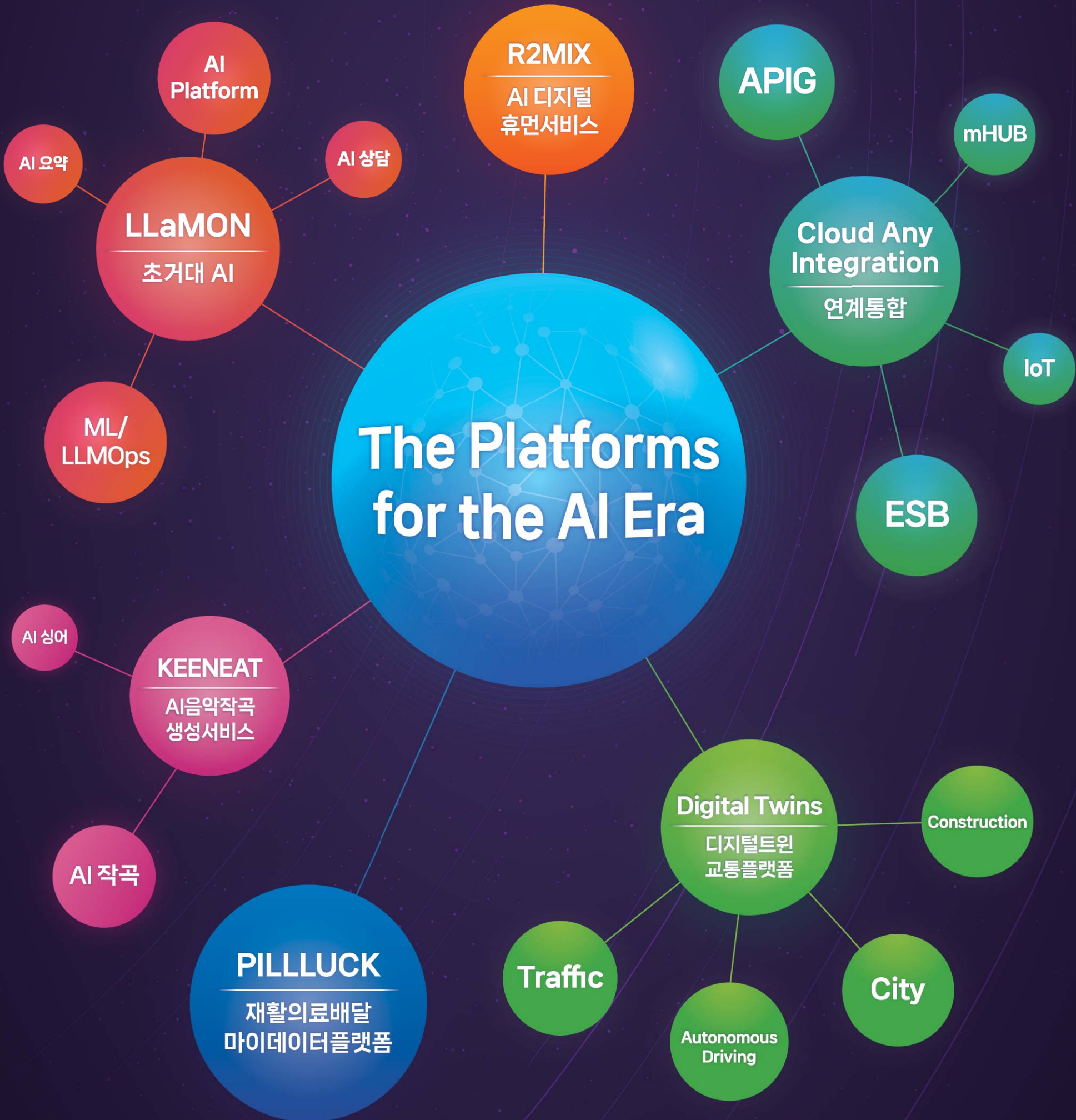


AI · 데이터 플랫폼 혁신 기업

Platforms for the AI Era

연계·통합 미들웨어 시장점유율 1등 기업에서

AI·데이터·디지털휴먼, 디지털트윈 교통·자동차·시티·건설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경기도·GH, 자족시설용지 공급 첨단산업 선도기업 유치 '박차'

제3판교 테크노밸리 청사진으로 '직·주·락·학' '스타트업 천국' 제시 9월 중 공모절차... 연말 최종선정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 시스템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선도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자족시설용지를 공급하기로 하고 9월 중 공모를 추진한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성남금도 공공주택지구' 내 7만 3000㎡의 부지에 연면적 50만㎡의 규모로 사업비 1조 7000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민·관 통합 지식산업센터로 2025년 착공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제3판교 테크노밸리 청사진'을 '직(職)·주(住)·락(樂)·학(學) -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스타트업 천

국'으로 제시하면서 판교를 산업과 각종 혁신의 심장으로서 만들어 세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모 대상 용지는 자족시설용지 1-4번(6천168㎡), 3번(5천696㎡)이며,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공모 대상 기업은 시스템반도체, ICT, 로봇, 인공지능, 게임 등 첨단산업 분야에 유능한 기업이다. 도는 이들 기업이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 예정인 첨단학과 대학과 연계해 글로벌 첨단 산학 클러스터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과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업무공간을 임대하고, 테스트베드, 공유경제 기반의 장비, 회의실과 스타트업 재정지원을 위한 전용 펀드 조성, 통근고통 없는 공공기숙사 1천 호를 공급하는 등 진정한

직(職)·주(住)·락(樂)+학(學)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GH공사는 8월 중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담은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중에 공모절차에 들어가 연말까지 공급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2025년 1/4분기에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 공급하고, 2025년 말에 건축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첨단산업 선도기업(앵커기업) 용지공급 사전 안내를 필두로 대학교, 연구소, 중견기업, 스타트업 육성·지원책 등을 도입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융합 클러스터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 등 경기-테크노밸리에도 제3판교와 같은 개발 컨셉을 응용해 경기도를 첨단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metroseoul.co.kr



오승균 한국직업능력교육협회 이사장(맨 오른쪽)이 지난 10일·1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직업교육박람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교육협회

경북교육청, 직업계고 유학생 48명 입학

지방 소멸 대응책으로 주목

인구 부족에 따른 지방 소멸 대응책으로 '고교 유학생 유치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관내 직업계고등학교에 올해만 총 4개국 48명의 유학생을 유치하며 우수 사례로 꼽힌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상북도교육청이 지난 10일·1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4 직업교육박람회'에 올해 처음으로 글로벌관이 마련돼 해외유학생 유치 사업에 대한 정

보를 나눴다.

직업교육박람회는 변화하는 미래 산업사회의 직업교육 방향과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중학생 대상 직업 진로 정보 제공 등 직업계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졸업생과 재학생, 학부모, 기업체, 해외 유학생 등 6000여 명이 현장을 방문했다. 대회 운영위원장(박기환 의성유니텍고 교장)초청으로 오승균 한국직업능력교육협회 이사장과 김수태 회장도 참석해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프로그램 정보를 나눴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학교 11종 행정업무 이관

학교행정지원센터 시범 운영 문제점 보완 후 서울시 전역 확대 채용 업무, 시설관리 등 지원 추진

그간 서울 관내 교사들이 해왔던 스쿨버스 계약, 소방합동훈련, 대규모 공사 행정업무 등 교원갈등을 유발하던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부터 남부교육지원청 내에 학교행정지원센터를 팀 단위로 설치하고 내년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학교행정지원센터는 교사의 행정 업무를 덜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됐다. 시교육청은 시범 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뒤 향후 서울시 전역 11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행정지원센터는 학교에서 처리하기에 부담이 큰 교무행정업무,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교직원간 갈등을 유발하는 업무 등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약 11종의 행정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기간제교원, 협력강사 등 모든 직종의 채용 업무를 계획 수립부터 면접, 호봉확정 단계까지 모두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학교 대면연수 강사 구인의 편의성 향상을 돕기 위해 강사 인력풀 및 표준 연수자료를 제공하며, 향

후 나이스시스템 개선을 통해 교직원 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 연수 이수 현황도 일괄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입학준비금 업무 지원 ▲교원 등 호봉 승급·초임호봉 확정 등 지원 ▲학교와 소방서의 합동훈련 일정 조율 지원 ▲대규모 공사 업무 지원 ▲학교 공통수행 업무 중 일괄 위탁할 경우 업무경감과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보건환경위생(공기질검사, 저수조 청소 등) ▲시설관리(소방, 전기, 가스 등) 업무 등의 위탁 지원도 추진한다.

현장 소통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관내 교원, 행정실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직원 대상 업무경감 체감도 모니터링과 이관업무 발굴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내 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행정효율화학교'를 내년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한다. 학교 내에서 교무행정업무 일부를 행정실로 이관하고 지방공무원이 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해당 학교에 일반직공무원을 추가로 1명씩 배정해 늘봄·방과후학교 업무 및 학교인력 채용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해 교원 업무 경감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을 통한 교육활동 집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

을 추진해 왔다. 2019년에는 전국 시도 교육청 최초로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폭력사안처리, 위기학생 지원 등 교육활동·생활교육 등의 업무를 이관받아 학교가 부담없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난 3월에는 학교내 증가하는 교권 침해 사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청 내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해 총괄 정책을 담당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기존 학교폭력 업무와 더불어 '교육활동보호'를 추가해 학교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학교행정지원센터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학교행정통합지원모델 TF를 운영하고, 본청 각 부서, 지원청, 학교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학교행정지원센터 운영 방안'에 따른 조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행정지원센터 신설을 통해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업무 경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보호·생활교육지원, 학생맞춤형 통합지원, 행정 통합지원의 3체계를 구축해 학교지원 기능에 보다 더 충실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hj@

서울시, 집값 담합 주도 단속방 '적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방장 입건 아파트 소유자에 가격 왜곡 유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A 아파트 소유자 단속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속방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회원들은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또 B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 대상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

지 말 것을 강요하고,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했다.

이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라며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광주 청년구직자에 일경험 지원해드려요"

광주시 '일경험 드림 만남의 날' 구직자 979명, 사업장 289개 참여

광주와 나주혁신도시에서 일경험을 희망하는 광주청년 구직자 979명이 광주시가 마련한 '일경험 드림 만남의 날'에 몰렸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드림 만남의 날' 행사에 청년 구직자 979명과 289개 드림터(사업장)가 참여해 마무리했다.

'드림 만남의 날'은 청년의 구직활동 의지를 북돋고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드림터와 구직 청년의 일경험을 연결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전력거래소, 광주신용보증재단 등 공공서비스형 80개 기관과 한국알프스㈜, ㈜해양에너지, ㈜무등기업 등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형 사업장 209개사 등 총 289개 드림터가 참여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시청 시민홀에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드림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광역시

300개 부스에서는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직무 등에 대해 상담·면접 등이 진행됐고, 광주시가 추진 중인 청년정책 홍보도 함께 이뤄졌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청년 구직자 중 470명을 '제16기 드림청년'으로 선발한다. 최종 선정된 드림청년은 매칭된 드림터(사업장)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 일경험을 체험한다. 선발 결과는 26일 광주청년정책플랫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광주시 누리집에 각각 게시할 예정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전남도, 올해 상반기 수출액 241억달러 돌파

전년 동기 대비 8% 성장률 달성 화학공업 제품, 농수산물 등 성과

전라남도는 올 상반기 241억 3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8%의 성장률을 달성, 전남 주력산업과 농수산식품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전남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수송기계, 정밀화학제품 등이다.

이들 품목은 전반적으로 고른 성장을 보였으며, 특히 화학공업 제품과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타 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은 무려 782.9% 증가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라이베리아 등이다. 이 중 라이베리아로의 수출이 601.6% 증가해 큰 성장을 보였고, 미국과 베트남으로의 수출 역시 각각 31.4%와 29.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음식부터 문화예술까지... CJ, K-컬처 '홍보대사' 자처

파리서 '코리아하우스' 운영

7년째 국가대표 선수단 후원
선수라운지에 24시간 '한식' 준비
올림픽 기간 '국가 홍보관' 역할
CJ그룹관·비비고존 등 마련

CJ그룹(이하 CJ)이 대한체육회의 공식 파트너사로서 2024 파리올림픽의 'K-컬처' 국가대표로 활약한다.

CJ는 오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팀 코리아 선수단에 한식 제품을 지원하여 메달 도전에 힘을 싣고 대회 기간 내내 코리아하우스에서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알릴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국가대표 '밥심' 책임진다

CJ는 7년째 대한체육회와 인연을 맺고 국가대표 선수단을 지원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2017년 대한체육회의 공식 스폰서(간편식품부문)가 되어 2018년 평창올림픽부터 후원을 시작했다. 이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2020 도쿄올림픽,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현지에서도 국가대표 선수단에



올림픽 기간 파리에 마련되는 코리아하우스의 내부 정원 모습. /CJ그룹

다양한 먹거리를 지원했다.

2023년부터는 CJ주식회사가 대한체육회의 1등급 공식 파트너사(지주부분)가 되었다. 지난해에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비비고·고메 데이'를 열어 훈련 중인 선수들에게 특식을 제공하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선수촌 안에 부스를 만들어 밥·짜개·반찬 및 간식을 비치해 CJ의 다양한 제품을 제공했다. CJ가 대한체육회와 함께 하면서 선수들은 대회가 열리는 타지에서도 한식이 그리울 때면 언제든지 손쉽게 CJ 간

편식을 이용해 한식을 먹을 수 있었다.

CJ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팀 코리아를 위해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CJ제일제당은 지난 6월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수영 대표팀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본갈비탕, 왕교자, 통새우만두, 쌀떡볶이 등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된 비비고 패키지를 수영 대표팀에 전달했다. 올림픽 기간 중에도 코리아하우스 선수라운지 안에는 팀코리아 선수들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한식이 준비되어 있어 종목에 상관없이 팀 코리아 전체

의 '밥심'을 책임질 예정이다.

◆파리에서 'K-컬처' 전파

파리 도심 한가운데 마련되는 대한체육회 주최 2024 파리 하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는 국가대표 선수단 지원을 넘어, 파리올림픽 기간 전세계 방문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와 음식을 알리는 '국가 홍보관' 역할을 할 예정이다.

코리아하우스 내에 CJ그룹과 비비고(bibigo)의 홍보 전용 공간인 'CJ그룹관', '비비고 존(Zone)'도 마련하여 'CJ가 최고의 K-컬처 아이콘(CJ is the best K-culture icon)'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CJ 그룹관에서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CJ그룹의 대중적인 제품과 콘텐츠(K-푸드, K-뷰티, K-드라마, K-무비, K-팝)를 영상, 이미지, 포스터 및 포토부스 등으로 구현한다. 비비고 존은 한국의 '시장'을 모티프로, 현재 유럽에서 관심이 높은 'K-스트리트 푸드'를 통해 한식의 맛과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현지에서 보여줄 예정이다.

25일 열리는 코리아하우스 개관식 정찬은 CJ제일제당의 한식 세계화 프로젝

트 '퀴진케이'가 맡는다. 퀴진케이는 CJ제일제당이 2023년 5월 시작한 프로젝트로 "전 세계인이 일주일에 1~2회 이상 한식을 즐기도록 하겠다"라는 이재현 회장의 철학에 따라 유망한 한식 셰프들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한국의 젊은 셰프들은 코리아하우스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모인 귀빈들에게 한국의 맛과 멋을 알릴 예정이다.

◆대한민국 스포츠 뿌리를 단단하게

CJ는 프로 스포츠를 넘어 아마추어 기초 종목으로 후원의 스펙트럼을 꾸준히 확장해왔다. 2010년부터 프리스타일 모글스키, 스킨레톤, 스노보드 등 동계 종목을 꾸준히 후원해 왔고, 현재는 수영, 브레이킹, 테니스, 육상(투포환) 등 총 7개 종목 34명의 선수를 후원하고 있다.

또한, 선수 개인뿐 아니라 종목 연맹 후원을 통해 종목 전체의 발전을 이끌며 스포츠 후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6월 대한수영연맹, 11월 대한빙상경기연맹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선수들의 전지 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에 다양한 제품을 지원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1.5억 투입, 1년 공들인 '교촌옥수수' 첫 선

교촌에프앤비, 신메뉴 기자간담회
옥수수 함량 75% '리얼 플레이크'
"소비자 조사만 7번, 완성도 자신"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교촌그룹 판교신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메뉴 '교촌옥수수'를 출시, 이날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메뉴는 아카시아꿀과 옥수수, 무염버터로 완성한 특제소스로 옥수수의 진한 단맛을 구현했다. 무엇보다 시즈닝이 아닌 진짜 옥수수로 만든 '리얼 옥수수 플레이크'를 치킨 표면에 버무리 달콤하면서도 바삭한 특유의 식감을 최대한 살렸다. 이런 맛을 구현하기 위해 먼저 튀겨낸 치킨에 소스를 한번 버무리고, 옥수수 플레이크로 또 한번 버무리는 등 총 2번의 텀블링 과정을 거쳐 치킨에 소스를 입혔다.

윤진호 교촌에프앤비 국내사업지원 부문장(사장)은 "단순 시즈닝이 아닌,



윤진호 교촌에프앤비 국내사업지원부문장(사장)이 18일 교촌 신메뉴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교촌에프앤비

옥수수 함량 75%의 플레이크로 타사 옥수수 함량이 가장 높은 치킨 시즈닝(18g) 함유 대비 1.7배(30g) 함유했다"며 "정식 출시에 앞서 대학생과 고객, 가맹점주 등을 통해 사전 조사한 기호도 테스트에서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실제 교촌은 이번 신메뉴 개발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년 간의 준비과정

을 거쳐 '교촌옥수수'를 탄생시켰다. 지금의 맛과 레시피 개발을 위해 지난 1년간 조리한 닭만 총 4330마리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이태원 교촌필방 매장에서 선보이며 고객들의 피드백을 꾸준히 수집했고, 1년간 총 7회에 걸친 소비자 조사 과정을 거치며 대중들의 입맛을 확인했다.

윤 부문장은 "메뉴 개발에 사용된 재료와 기술 개발에만 1억5000만원 이상 투자비용이 소요됐다"며 "모든 제품은 원원강 회장을 포함해 경영진이 시식을 했으며, 특히 소비자 대상 7번의 조사를 실시했을 정도로 제품의 완성도(맛)에 대해서는 자신있다"고 말했다. 이어 "목표하는 판매치는 교촌치킨의 네번째 시그니처 제품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하루 판매량의 5~10%를 신제품이 차지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교촌치킨은 '교촌옥수수' 출시 이후 또 하나의 신메뉴 '다담달밥'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애경 '루나' 상반기 日 매출 4배 뛰었다

현지서 4600여 개 매장 운영중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의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루나'가 일본 화장품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애경산업은 루나가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18일 밝혔다.

애경산업에 따르면, 루나는 지난 2021년 일본 시장에 본격 진출한 후 올해 상반기까지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일본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배, 2023년에는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 애경산업 측의 설명이다.

루나는 2021년 쿠팡재팬, 라쿠텐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고, 2022년 11월 650여 점포를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6월 기준 4600여 개 매장으로 유통망을 확장했다.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루나' /애경산업

이와 관련 루나는 일본 시장 특유의 유통구조에 맞춘 입점 전략을 펼친 것이라고 설명한다. 루나는 오프라인 매장이 강세인 일본 시장 특성에 발맞춰 온라인에 선입점해 구축한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프라인에 진출한 것이다. 지난 2023년 상반기 루나가 일본 시장에서 형성한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출 비중은 각각 61%, 39%였다. 루나는 올해 오프라인 비중을 77%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오리온, 100% 국산 쌀로 만든 '뉴릉지'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운 스낵

오리온은 100% 국산 쌀로 만든 쌀과자 '뉴릉지(사진)'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리온은 쌀을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한편,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번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 뉴릉지는 일반적인 스낵과 다르게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웠으며, 100% 국산 쌀을 사용해

밀가루 없는 스낵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제격이다. 뉴릉지를 먹고 자란 중장년층에는 익숙함을, MZ세대들에게는 새로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품명은 특징을 반영해 '새로운'을 뜻하는 영어 단어 'New'와 '뉴릉지'를 합성해 '뉴릉지'로 워드 있게 표현했다.

한편, 뉴릉지는 오리온농협 밀양공장에서 만든 제품으로, 오리온농협은 국산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지난



2016년 오리온과 농협이 설립한 합작 법인이다. '마켓오네이처 오!그레놀라 및 오!그레놀라 바'를 비롯해 '태양의 맛 썬', '치킨 팝' 등 다양한 제품에 연간 1000톤에 달하는 국산 쌀을 사용하고 있다. 뉴릉지 또한 100% 국산 쌀로 만드는 만큼 쌀 소비 증대에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남양유업, 이달 말까지 '인기분유 특가'

아이엠마더 등 4종 최대 42% 할인

남양유업이 공식 SNS 채널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합하면서 '인기 분유 4종 특가' 행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고 18일 밝혔다. 구매는 남양유업 자사몰인 '남양몰'에서 할 수 있다.

남양유업은 다양한 기업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 계정 리뉴얼을 지난달 추진했다. 일원화된 공식 채널을 통해 앞으로 '매월 1회 특가 할인' 이벤트 정보와 'ESG 경영 행보' 등을 알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남양유업의 스테디셀러 제품인 ▲아이엠마더 ▲임페리얼 XO와 같은 일반 분유는 물론, ▲탈지하지 않은 산양 원유를 담은 유기농 산양분유 ▲민감한 아기를 위한 아이엠마더 컴포트케어 제품까지 총 4종의 남양유업 인기 분유들을 최대 42% 할인가에 판매한다. 구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남양유업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남양유업은 60년 오너 체제를 끝내고 지난 1월 말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됐다. /신원선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북4 엣지', 6년 연속 에너지 대상 쾌거

'제27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 시상
'갤럭시 북4 엣지' 대상·장관상 수상
저전력 부품·고효율 회로 등 적용

삼성전자가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7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 시상에서 6년 연속 '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 또 3년 연속으로 '탄소중립위너상'을, '에너지절약상'과 '에너지기술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북4 엣지'가 올해 에너지위너상의 에너지 대상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제품은 온디바이스와 클라우드를 모두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AI'를 통해 보다 혁신적이고 안전한 AI PC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저전력 부



'제27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에서 '에너지 대상'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갤럭시 북4 엣지'. /삼성전자

품 및 고효율 회로를 채용하고, 전원 관리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모델 성능 대비 대기전력은 50% 저감, 전력 효율성은 80%를 개선하는 등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에너지 절약상은 열전달 성능이

우수한 실의 열교환기와 고효율 냉매를 적용해 냉방 에너지 효율 1등급을 달성한 '무풍에어컨 벽걸이'가 수상했다.

에너지 기술상에 선정된 '비스포크 AI 인덕션'은 고효율 인버터 제어 기술

을 적용하고 진동 감지 센서를 탑재해 알아서 화력을 조절하는 'AI 끓음 감지' 기능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다.

그밖에 비스포크 큐브 에어 인피니트 라인과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그랑데 건조기 AI 제품이 에너지위너상에 선정됐다.

올해 '탄소중립위너상'에는 주기적 교체가 필요 없는 리유저블 필터를 탑재해 일회용 폐기물을 저감하는 효과를 인정받은 '비스포크 큐브 에어 인피니트 라인' 공기청정기가 선정됐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3년 연속 '탄소중립위너상'을 받았다.



/이혜민 수습기자 유튜브 영상 제공
hyem@metroseoul.co.kr YouTube



G마켓, 장흥군 농특산물 판매 돕는다

G마켓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며 지역 경제 살리기에 힘쓰고 있다. G마켓은 지난 17일 전남 장흥에서 장흥군, 포레스트그루코리아와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추진"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G마켓



티웨이항공, 임직원 응원 여름철 이벤트

티웨이항공이 무더운 여름철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초복을 맞아 임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여름철 간식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15일 서울시 강서구에 훈련센터에서 여름 간식사 이벤트를 마련했다. /티웨이항공

LGU+, 韓 최대 캐릭터 행사서 '무너' 알리기 KT&G장학재단, 경찰대학과 인재양성 협약

글로벌 사업 기회 발굴

LG유플러스가 국내 최대 규모 캐릭터 행사에 참가해 자사 대표 캐릭터 '무너'를 알리고 글로벌 사업 기회를 발굴한다. LG유플러스는 매년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규모 캐릭터 행사인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4'에 참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LG유플러스는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무너 캐릭터를 알릴 계획이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에 마련된 무너크루 부스 현장. /LGU+

진행되며, 총 264개 기업이 680개의 부스를 운영한다. 무너는 당당한 MZ세대 K-직장인이라는 페르소나를 가진 LG유플러스 대표 캐릭터다. 지난해 온·오프라인으로 사회초년생이 공감할 만한 메시지를 전달해 MZ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는 국내외 캐릭터 라이선싱 기업들이 참여하는 라이선싱 비즈니스 행사로, 콘텐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자리다. 올해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경찰대학생 안정적 교육환경 지원

KT&G장학재단은 전날 국가공헌 미래인재인 경찰대학생의 안정적 교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대학 교육진흥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승택 KT&G 지속경영본부장과 안홍필 KT&G장학재단 사무국장, 이호영 경찰대학장, 김두연 경찰대학 교육진흥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경찰대학교에서 진행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KT&G장학재단은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등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들에

계 총 3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홍필 KT&G장학재단 사무국장은 "국가에 기여할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찰대학 교육진흥재단과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장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의 차세대 인재를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8년 설립된 KT&G장학재단은 교육 소외계층 지원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매년 문화예술 분야 장학생을 지원하며 재능 있는 예술인 발굴에도 기여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우리카드, '싱가포르 UOB'와 제휴 협약

우리카드가 금융혜택으로 한국과 아세안(ASEAN) 국가를 연결한다. 우리카드는 싱가포르 유니타이트해외은행(UOB)과 카드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카드와 UOB 주요 인사가 참석해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우리카드

중앙대 언론동문회, 이종훈 신임 회장 선임

중앙대학교 언론동문회는 이종훈(57·불문86) 동아일보 마케팅본부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대언론동문회는 지난 17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 유니버시티클럽에서 '2024년 정기 총회'를 열고 회장이 취임식과 '2024 제12회 의협언론인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총회에는 박상규 중

앙대 총장과 신한국 총동문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SBS 이일환 동문(신문방송 92)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종훈 신임 회장은 1967년 서울 출생으로 중앙대 불어불문학과(86학번)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10대학에서 정보커뮤니케이션 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윤휘중 기자 yhi

한양증권, '브루킨즈 아카데미' 2기 종료

한양증권은 '브루킨즈 아카데미 2기' 활동을 종료했다고 18일 밝혔다.

브루킨즈 아카데미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학생(Student) 연구원들이 사내 직원들과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산학연계의 새로운 모델이다. 2기 연구원들은 6개월 간 활동하며 ▲구글의 20% 규칙을 기반으로 한 조직 경쟁력 구축 방안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위한 주요 요인 분석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전략 탐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과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이 끝나면 Student 연구원들과 임직원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연구원들은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개선된 방법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 배우게 된다. 2기 과정을 수료한 안재현 Student 연구원은 "꿈을 구체화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자 대학생 신분으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아산나눔재단

엄윤미 신임 이사장 선임

아산나눔재단은 엄윤미 도서문화재단씨앗이사(사진)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엄윤미 신임 이사장은 지난 2021년부터 아산나눔재단에서 사외이사를 맡아 재단이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운영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 자문 역할을 적극 수행해 왔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오늘의 날씨

7월 19일 (금) 음력 : 6월 14일

수도권 날씨 24~31°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25 | 해질 / 19:51

백령도 22/27

연천 22/32

파주 22/31

동두천 22/31

가평 22/32

서울 24/31

인천 24/29

양평 22/31

수원 24/30

용인 24/30

평택 24/3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나라셀라, 시니어 와인 교육 2기 운영

와인 문화를 선도하는 와인 수입사 나라셀라가 와인 소매점 창업 및 취업을 희망하는 4050 세대를 대상으로 '시니어(新-Year) 와인 교육' 프로그램을 2기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나라셀라의 시니어 와인 교육 프로그램은 와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와인업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 전문가들을 양성한다는 취지 아래 모든 교육 과정이 무료로 진행된다. 올해로 2기를 맞이하는 본 프로그램은 와인을 중심으로 스피릿과 사케 및 와인 소매점 창업과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채로운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부음

▲안상준씨 별세, 안성준(대전우리병원 척추관절기능치료센터 과장)씨 형제상=17일, 대청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9일. 042-587-4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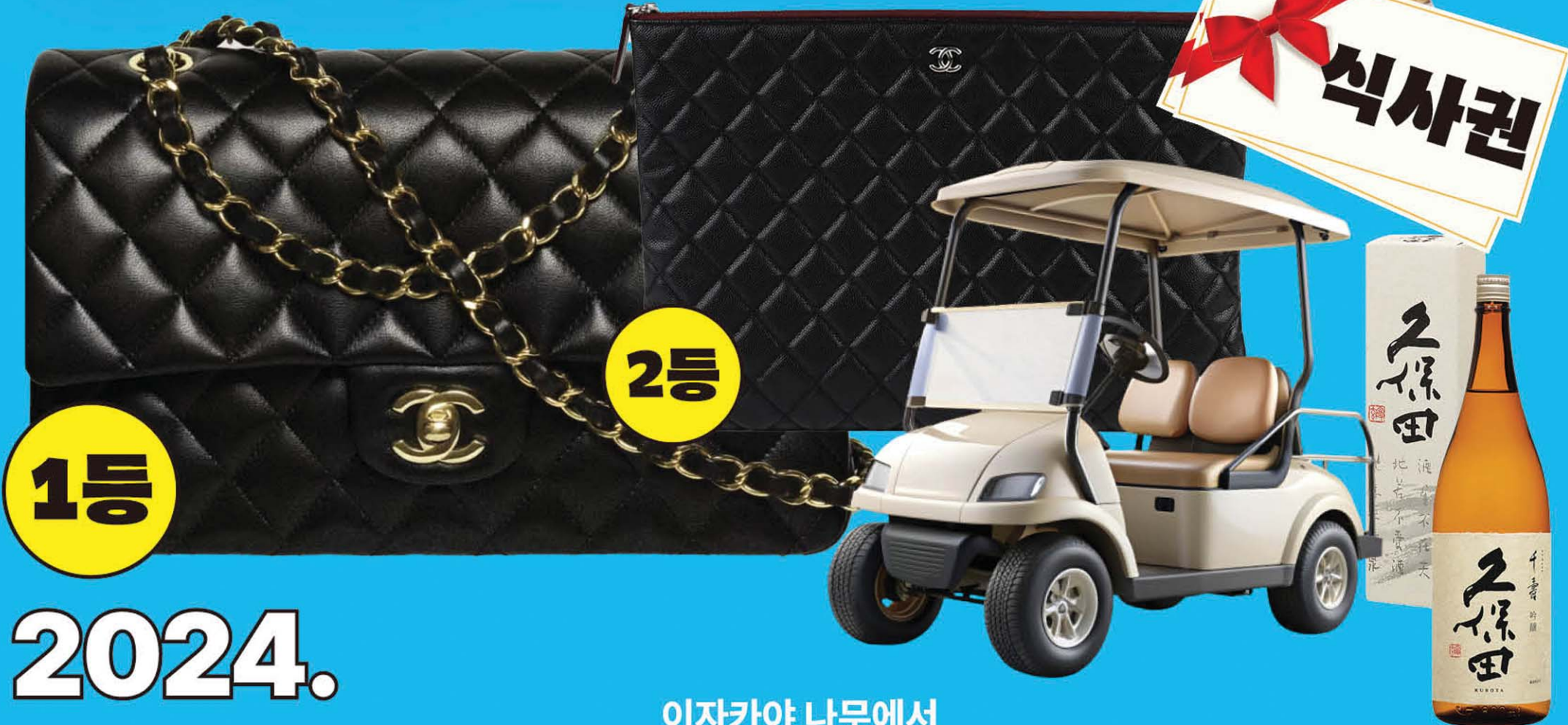
▲박우규씨 별세, 윤필웅(농협중앙회 청주시지부 농정지원담당)씨 장인상=17일, 청주성모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9일 낮 12시. 043-210-5444

▲백광익(전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장)씨 별세 = 16일 오후 2시30분, 부민장례식장 제4분향소, 발인 19일 오전 10시, 064-742-5000

이자카야 나무의 여름휴가 응원!



1억 원 1천명 경품 이벤트



1등

2등

2024.
7.15.~8.31.

이자카야 나무에서
샤넬 핸드백, 샤넬 클러치백, 4인 골프 라운딩 (그린피+카트비) 6명 등
1천 명에게 1억 원의 선물을 드립니다!

기간

2024. 7. 15. ~8. 31. (1.5개월)

대상

이벤트 기간 내 저녁 방문 모든 고객 (점심 고객 제외)
테이블 수에 맞춰서 스크래치 복권 1매 제공 및 응모
금액 결제 시, 복권 제공

참여 방법

광고 없는 스크래치 복권 (기간 내 중복응모 가능)

이벤트 발표 및 경품 지급

15개 지점 현장
샤넬 핸드백, 샤넬 클러치백, 골프 라운딩(4인 그린피+카트비) 등

Tel: 02-511-6787 / E-mail: namu19817@naver.com

www.namulove.co.kr

경품 내용

- 1등 샤넬 클래식 핸드백(11.12 클래식 핸드백) x 1명
(1,800만 원 상당)
- 2등 샤넬 클러치백(클래식 클러치 미디움 은장) x 3명
(750만 원 상당)
- 3등 4인 골프 라운드권 x 6명
(900만 원 상당)
- 4등 10만 원 식사권 x 192명 (약 1,900만 원 상당)
식사권은 다음 방문 시 사용 가능
- 5등 쿠보타센쥬 사케(96,000원) x 240명
(약 2,300만 원 상당)
- 6등 5만 원 식사권 x 576명 (약 2,880만 원 상당),
식사권은 다음 방문 시 사용 가능
- 7등 참여자 전원 생맥주 두 잔씩(복권 한 장 당 생맥주 2잔)
다음 방문 시 사용 가능

한은의 딜레마



박 승 덕
냉정과 열정사이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물가안정과 고용시장 둔화로 금리인하 시기가 가까워졌다. 우리나라도 인하 기대가 높다. 고금리 대출이자에 허덕이는 서민층과 자영업자들은 금리인하를 손꼽아 기다린다. 그렇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7월 기준금리(연 3.5%) 동결 이후 “지금 금리인하를 위해 차선을 바꾸고, 방향 전환을 언제 해야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다”라며 “다만 언제 방향을 전환할지 여부는 위험요인이 많아 불확실한 상태”라고 했다. 물가안정 등 일부 조건은 충족해 차선을 바꿨지만 실제 방향전환(금리인하)은 언제일지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한은이 실제 깜빡이를 켜기 어려운 이유는 외환시장 움직임(원화 가치 하락)과 수도권 집값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위험요인이 많아서다. 최근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 가치가 약세다. 일부에선 1400원 돌파도 우려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

게 되면 수입물가 부담이 커진다. 환율이 상승하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집값도 심상치 않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지금 가장 싸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이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 및 수도권 중심지로 집값 상승폭이 커지면서 전국 평균을 끌어올렸다. 지난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전월대비 0.04%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0.19%)과 서울(0.38%)의 6월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집값 상승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올해 들어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 늘었다. 서울, 성남 등 일부 아파트 청약시장이 뜨거웠다. 금리인하가 유력하니 지금이라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야 한다는 수요가 많아졌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9%를 기록했다. IIF 정기 보고서에 들어가는 59개국 가운데 4위다. 우리나라는 영끌바

람이 불었던 2019년 이후 5년 넘게 상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 100.5%로 100%를 돌파한 뒤 3년 반 만인 올 1분기에 처음으로 90%대로 내려온 것이 다행이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은행권의 지난 6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6조3000억원)은 작년 8월(7조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올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누적 증가 규모(26조5000억원)는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이후 3년 만에 최대였다. 한은이 당장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이유다.

한은 금통위는 이달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항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고금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변수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당분간 금리인하를 결정할 수 있는 트리거가 부족하다. 금리는 타이밍이다. 먼저 미국의 금리인하가 현실화해야 한다. 그리고 가계부채·집값·외환시장 안정이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충분조건이다. 한은의 금리인하 방침이 복잡해졌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7월 19일 (음 6월 14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등잔 밑이 어두우니 모임에서 만남 조심. 48년생 관찮은지 물어봐 주는 친구가 있어서 좋다. 60년생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니 흘려보내라. 72년생 조심할 것 간 밭의 차이로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84년생 지출이 과다하여 스트레스.
- 소** 37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라 했다. 49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는 하루. 61년생 온전한 새로움을 추구하지 마라. 73년생 작은 투자에 기쁨이 따른다. 85년생 내가 하는 일이 대단한 것 같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 견뎌보라.
- 호랑이** 38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해답이 보인다. 50년생 오늘은 양보와 겸손이 미덕이다. 62년생 뭐다 보면 가슴 벅찬 일이 생긴다. 74년생 열심히 하다 보면 운세도 열리는 발전 기세. 86년생 매사 일이 다 된 것처럼 기대하지 말도록.
- 토끼** 39년생 부처님 손바닥 안이니 너무 애쓰지 말자. 51년생 진흙탕물이 많은 물이 되는 날이다. 63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이다. 75년생 기대가 너무 크니 서운함도 크다. 87년생 취침 전에 명상으로 기도를 해 보면 답이 보일 터.
- 용** 40년생 친구의 소식에 청천벽력이다. 52년생 사소한 실수로 일이 틀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라. 64년생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했으니. 76년생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니 행동에 나설 때이다. 88년생 계속되는 호외에 고마움을 표시.
- 뱀** 41년생 해오던 일도 싫증이 난다. 53년생 후배와 갈등이 생기니 주의. 65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니 꾸준한 노력. 77년생 편하게 생각하면 죽은 나무에 공들여 봤자 일 것. 89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미리 메모를 해두자.
- 말** 42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보람 있는 하루. 54년생 오늘 준비해야 내일이 기다려지는 법. 66년생 조심해라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 78년생 직장에서 고생을 알아주니 기쁜 일. 90년생 나 못 먹음 밥에 재 뿌리는 행동은 하지 말도록.
- 양** 43년생 가까이 있다 해서 소홀히 대하지 마라. 55년생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게 되는 세상사. 67년생 감정절제를 잘해야 일이 성사. 79년생 자존감이 지나치니 주변이 불편. 91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 원숭이** 44년생 가는 곳마다 행운이 따르니 많은 소득이 발생. 56년생 익숙해지면 게을러지기 마련. 68년생 아직보다는 현상 유지가 최선이다. 80년생 금일은 일이 풀리니 스트레스도 풀린다. 92년생 사귀기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우선 의견통일을 해야.
- 닭** 45년생 달리지만 말고 주변을 돌아보라 보고 있다. 57년생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득 해서 실수하게 된다. 69년생 우는 아이는 젖을 짜서 달래야 한다. 81년생 자신이 부족함을 인정하면 만사가 편하다. 93년생 오늘은 무조건 참는 것이 좋다.
- 개** 46년생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개척하려고 애쓰지 마라. 58년생 오후에 검은 옷 입을 일이 있다. 70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는 덕을 잇는 법이니 마음을 비워라. 82년생 오늘 은 이성 소개 인연의 경사가 이뤄진다. 94년생 오후 5시부터는 음주는 금물.
- 돼지** 47년생 계단 조심. 59년생 오늘은 금전 문제로 이득이. 71년생 금일 만남에는 약간의 망상이 따름. 83년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95년생 내 것으로 못 만들 것 같다고 남도 가지지 못하게 심술을 부리면 결국 내가 손해다.

전당대회가 끝나도 엔딩 크레딧은 안 올라가요



기 지 수
서 예 진
(정치경제부)

영화가 끝나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 엔딩 크레딧은 말 그대로 영화의 ‘끝’을 상징한다. 기자에게는 ‘이 이야기가 끝났으니 현실 세계로 돌아오라’는 의미로 느껴진다.

하지만 현실 정치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지 않는다. 대통령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여당이 사라지는 않는다. 혹은 어느 정치인이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해서 화면이 전환되고 스크린에 ‘주연 ○○○’라는 글씨가 뜨진 않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당대회의 슬로건을 ‘NEXT 보수의 진보’라고 정한 것

은 미래 정당으로 개혁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수’도, ‘진보’도, ‘NEXT’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한 달여의 기간 동안 당권주자들은 치열한 경쟁을 했다. 사실 치열한 경쟁이라는 말은 현상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야말로 ‘이전투구’가 따로 없다.

전당대회를 거치며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으로 갈라졌다. 4·10 총선에 끝나고 당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외쳤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문자 무시’ ‘사과 방해’ ‘여론 조작’ ‘공소 취하 청탁’ ‘색깔론’ 등 지역적인 내용만 주목을 받고 있다.

위에 나열한 이야기는 반대 진영에서 나온 이슈가 아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도중에 나온 것이다. 오죽하면 당내에서 “이명박·박근혜 대선 경선을 보는 것 같다”는 한탄이 나왔을까.

급기야는 후보 연설 현장에서 의자가 날아다니는 모습까지 나왔다. 이런 폭력 사태는 보수 진영에서는 생소한 장면이다.

이러다보니 전당대회가 끝난 후 당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원래 당내 경쟁이 더 치열하고 아픈 법이지만, 그 과정에서 ‘마지노선’을 지키는 것이 기존의 정치권이였다. 그러나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무너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각을 세웠고, 골이 패였다.

이제라도 당권주자들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폭로들이 ‘반성하고 나아가자’는 취지인지, 아니면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것이 영화라면 전당대회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지만, 현실에서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새로운 지도부가 첫발을 내딛기 때문이다.

/syj@

김상회의 4계절 명리학 학습



인생 2막을 시작하면서 명리 공부하는 시니어들이 많아졌다. 시니어들은 인생의 한 단락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는 나이이다. 그런 시기에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간을 내다보고 싶어 명리학을 연구한다. 인생 2막에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 시니어들이 많다. 다짐도 해보면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건지는 잘 모르기도 한다. 지금껏 먹고사느라 정신없이 달리기만 했고 가족부양에 모든 신경을 쏟으면서 자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 적합한 공부가 명리학이다. 아득한 옛날에는 하늘도 땅도 없었다. 신도 존재하지 않았으니 천지만물을 창조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원리와 천지자연의 결과 이치를 자연계에서 존재의 유무를 말할 수가 없을 때 최소한의 지침서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명리학은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라 말하고 싶다. 사주는 한 사람의 모든 걸 담고 있고 자연의 이치를 미리 보여준다. 태어난 시점의 간지를 바탕으로 사람의 운명을 살피고 운세의 흐름을 짚어보는 학문. 사람 됨됨이가 어떤지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지 부귀 빈천의 정도 살면서 맞이할 길흉과 화복의 정도가 어떠한지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인생 2막을 시작하면서 공부하는 건 좋은 선택이다. 일단 자기 자신을 알아야 새로운 도전의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 2막을 가꾸는데 훌륭한 토대가 되는 명리학에 흥미가 없더라도 최소한 자기 팔자를 알아보고 사주에 담긴 자기 모습이 어떠한지 살피기를 권한다. 사주를 펴보는 것은 인생길을 미리 답사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인생 전환기를 맞아 명리학에 매진하는 시니어의 건투를 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9					7	2
						6	
5				7			4
4			7			4	
		3		8			9
	5						
2			5				6
		6					
8	3						9

7		2		6		9	6
6	1						2
				1		9	
	7						9
				3		7	
	4						8
		8		5		7	1
3	9						

할인도서

9	6	2	4	7	1	8	9
7	8	3	2	8	1	9	6
9	1	8	6	6	9	2	7
8	9	1	6	2	7	9	2
6	9	2	8	1	8	2	9
8	2	4	7	9	2	6	8
4	8	6	2	9	2	8	1
1	8	9	9	7	6	8	2
2	2	9	1	8	8	7	6

9	7	2	1	2	8	6	8
1	8	2	7	9	6	8	9
6	8	9	9	8	2	2	1
2	9	1	2	7	8	9	8
8	6	7	9	2	9	1	2
8	2	9	6	8	1	9	2
2	2	8	8	6	9	2	1
9	1	8	8	9	7	2	6
4	9	6	2	1	2	8	9

metro 메트로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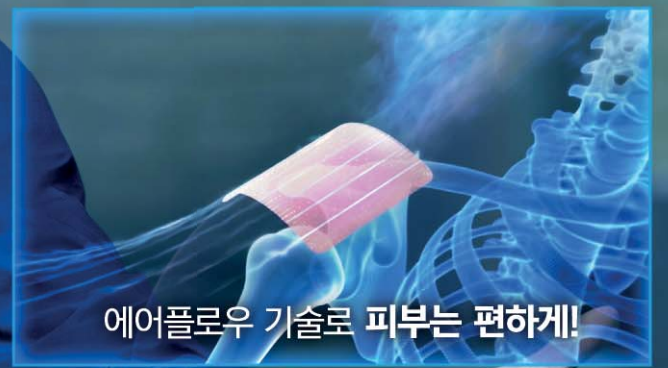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7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8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EIL 제일헬스사이언스

통증엔 케펜텍으로 Tech 하세요!



케펜텍 Cool

케펜텍 HOT

케펜텍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품 설명서 참조 및 본사 마케팅부(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3 제일헬스사이언스(주) Tel. 수신자부담 080-549-0002)로 문의 바랍니다.

광고심의필 : 2021-1584-004200

이탈리아 화이트와인의 재발견... 알토 아디제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상·중·하로 따져본다. 우선 산미. 모두 중상 이상. 화이트 와인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이라지만 입안에서 침 고이게 좋은 산미를 가진 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합격.

다음은 골격 혹은 힘을 보여주는 바디감. 이것도 중간 이상이다. 화이트 와인인데 집중력 있게 탄탄하다. 품종을 불문하고 구조감이 밀리지 않는다.

여기에 가끔은 짝퉁하게, 때론 젖은 돌에 혀를 댄 것처럼 미네랄이 느껴진다. 알토 아디제의 화이트 와인들이다. 이탈리아에서도 좋은 화이트 와인 산지로 꼽힐만 하다.

슈퍼투스칸에 끼안티, 아니면 바를



안드레아스 코플러 알토 아디제 와인 협회장이 알토 아디제 와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음을 위해 준비된 알토아디제 와인. /홍스코치 시음

로. 이탈리아 와인이라고 떠올려보니까 레드와인이었다. 와인 좀 마셔봤다면서도 그간 이탈리아 화이트 와인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그야말로 이탈리아 화이트 와인의 재발견이다.

안드레아스 코플러(Andreas Kofler) 알토 아디제 와인 협회장은 '알토 아디제 그랜드 테이스팅'을 위해 한국을 찾은 자리에서 "알토 아디제 지역은 생산하는 와인의 98%가 DOC(이탈리아

와인 등급 가운데 상위) 와인"이라며 "와인생산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대부분이 고급 와인이며, 그만큼 품질을 중요시한다"고 강조했다.

알토아디제 지역은 이탈리아 최북단이다. 지도로 장화 모양을 떠올리면 입구 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산지 규모로 보면 이탈리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가 안 되지만 대부분이 고급 와인이다보니 존재감이 있다.

알토아디제 와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다양성이다. 포도품종부터 와인 종류, 와인러리 운영 형태까지 그렇다. 재배하는 포도품종만도 20여 개에 달한다. 주력 품종으로 추려봐도 화이트 품종이 피노그리지오와 샤도네이, 게부르츠트라미너, 피노 블랑, 소비뇽 블랑 등 5개, 레드 품종이 스키아바와 피노누아, 라그레인 품종 등 3가지다.

다양한 품종이 다양한 테루아를 만났다. 알프스 산맥의 남쪽에 위치해 해발 고도가 200~1000m, 토양은 150개가 넘는 다양한 암석으로 되어 있다.

코플러 협회장은 "낮에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밤에는 알프스 그늘로 기온이 푹 떨어진다"며 "하루 일교차가 커 포도재배에 이상적인 기후로 아로마와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좋은 환경 덕에 차별화되는 게부르츠트라미너와 소비뇽블랑 와인이 만들어졌다. 게부르츠트라미너 답게 향은 향수만큼 진한데 생동감 있는 산미가 화려함

을 다듬어주고, 구조감까지 균형을 이룬다. 소비뇽블랑 역시 새콤하지만 잘 익은 열대과일에 허브향이 어우러지고, 힘과 함께 짭조름한 품미까지 갖췄다.

알토 아디제의 레드와인 생산비중도 35%로 낮지 않다. 토착품종인 스키아바를 비롯해 라그레인, 피노누아 등이 레드와인 대표주자다.

스키아바는 즙이 풍부하고 알콜도수가 낮은 편이다. 가볍고 부드럽게 즐기기에 좋다. 라그레인은 진한색부터 짙구별이 된다. 색만큼 잘 익은 체리향에 입안을 가득 채우는 풀바디 와인이다.

코플러 협회장은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와인러리가 많다고 해도 대량으로 마구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가족 단위의 생산자들이 각자 좋은 품질의 와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포도재배부터 와인양조까지 최고의 품질을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영화에 빠진 사람들의 반짝이는 이야기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선 광채가 뽀여져 나온다. 아름답고 찬란한 빛, 정기 있는 밝은 빛은 주위를 환하게 밝힐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들까지 열정으로 물들인다. 그 덕에 일의 재미를 맛본 사람들이 달뜬 분위기에 취해 곁으로 몰려드는 탓에 그의 주변은 늘 인파로 북적인다. 살면서 몇 명 보지 못했다.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다.

언론사 시험을 준비할 때 '신이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논제를 접한 적이 있다. 기억을 되짚어 사람이 가장 반짝일 때가 언제 인지를 떠올려 봤다. '끝없이 샘솟는 호기심, 탐구하고 싶은 마음, 멈추지 못하는 즐거움...' 이 모든 게 어우러져 만족스러운 하루를 만들어내는 건 '일'이었다. '사람은 해야 되는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지론 하에 답을 써 내려갔다.

자본주의 사회의 룰을 착실히 따르는 충성심 높은 워커홀릭이 되란 말은 아녘다. 하루 중 가족과 친구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일'이기에, 일과 불화하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의미였다. 현대인들이 불행한 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하기 싫은 일을 하며 보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기란 쉽지가 않다. 그럴 땐 책에서 롤모델을 찾아 조언을 구하면 된다. '당신은 대체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해냈나.'라는 질문을 마음에 품고, '나는 영화가 좋다'라는 책에는 '영화하는 일'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이 업에 미쳐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한국 최초의 여성 조명감독 1호'라는 타이틀을 가진 남진아 감독의 일화가 가장 인상 깊



나는 영화가 좋다
이창세 지음/지식의숲

었다. 그는 보통의 남자 같으면 6개월이면 끝냈을 '막내' 생활을 1년 넘게 했다. 여자 밑으로 들어가 일하려는 남자가 없었기 때문. 유리천장은 공고했다. 스케일 큰 블록버스터류의 영화엔 남자들이 더 잘 어울릴 것이라는 편견 어린 시선에 멜로 영화의 조명만을 맡아야 했다. 그는 사회의 '역까(역지로 까다, 역지로 비난하다)'에 굴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연애소설>(2002), <봄날의 꿈을 좋아하세요>(2003), <사랑을 놓치지>(2006)에서 섬세함과 따뜻함을 잘 살려낸 조명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빛으로 빛 본 영화들'을 만들어냈다는 평을 듣게 된다.

영화하는 일에 대한 남진아 조명감독의 소회는 다음과 같다. "결핍과 배움을 동시에 배웠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경험해도 다 알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가 없었다. 내 체질과 딱 맞아떨어진다고나 할까."

368쪽. 1만7500원. /김현정 기자 hjk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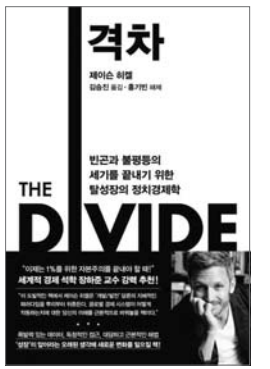
격차

세계은행 본부의 로비에는 "우리의 꿈은 빈곤 없는 세상입니다"는 슬로건이 붙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공식적인 임무는 "세계의 경제적 불안정을 줄이는 것"이다. 저자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전파한 메시지('선진국의 개발 노력 덕분에 빈곤과 기아 인구가 줄고 있다')는 전부 거짓이라고 밝힌다.

저자는 '잘사는 나라들이 최빈국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들이 부유한 나라들을 발전시킨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해 강조한다. 책은 오늘날 부유한 국가들이 제멋대로 휘두르는 경제 권력은 지난 수백년간 지속돼온 가난한 나라들로부터의 추출과 수탈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464쪽. 3만원.

제이슨 히켈 지음/김승진 옮김/아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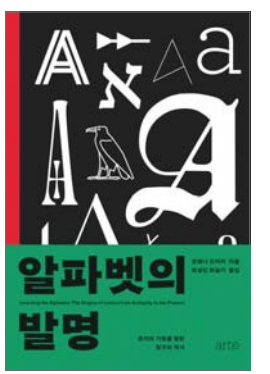
알파벳의 발명

'알파벳의 발명'은 지성사·문화사 최초로 학문의 대상으로서 '알파벳'을 탐구한 책이다. 고대 그리스 역사와 신화적 구성물, 성서의 해석에서부터 물증 조사, 고고학·고문자학·금석학·지리학 연구법과 현대의 프로그래밍 언어, 영숫자 표기법, 디지털 미디어 분석까지 수 세기를 관통하는 전 지구적 문자사를 다룬다.

저자는 알파벳의 발명이 인류의 사고방식,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알파벳의 신경학적·생리학적 효과를 분석한다. 나아가 다른 문화를 '젠더화'해 규정하는 데 다다른 것도 한다는 점에서, '알파벳의 문화사'는 '알파벳 문자성의 정치학'에 이르는 탐구로 확장된다.

424쪽. 4만8000원.

조해나 드러커 지음/최성민, 최슬기 옮김/arte(아르테)



아무 일도 없는 삶

책의 제목 '아무 일도 없는 삶'은, 인간다운 삶의 중요한 요소들이 제도와 서비스로 인해 오히려 차단당해버린 최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빗댄 말이기도 하다.

저자는 정부와 사회가 발달장애인을 위해 제공한 많은 제도와 서비스가 되레 당사자들을 고립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책

들이 그들의 자유로운 삶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인류공존과 번영이 우리의 숙명이라면 인간 사회는 발달장애를 배제하고서는 아무것도 이룩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처음부터 다시'라는 화두를 던져주는 책.

311쪽. 1만7000원.

시모 베마스, 리타 미에틀라 지음/김성남 옮김/밴스토리



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정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 23.6만호 시세보다 싸게 분양" /사진 뉴시스
▲대법 "종교시설 코로나 '집합금지'는 종교자유 침해 아냐"

▲대법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인정"
▲'3400억 가치' 삼성OLED기술, 중유출...징역6년·법정구속



▲"돈봉투 관행에 경종 울려야"...윤관석 前의원, 2심 징역 2년 /사진 뉴시스
▲의개특위,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공감대...도입 검토

“100세 플러스 포럼, 금융자산·연금 축적 길잡이 기대”

축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원장, 노후대비 필요성 강조
“현명한 투자 방향 제시해 주시길”

“밸류업 프로그램”의 목적은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성장을 투자자의 재산 증식으로 연결시키는 것. 그리고 투자자는 증식된 재산을 기업에 재투자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시키고자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에 참석해 축사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 100세 시대에 들어선 만큼 국민들의 노후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국민들의 평균 금융자산 비중은 전체 가계 자산의 36.8%로, 60%가 넘는 미국·일본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금융자산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예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투자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을 보다 확대해 나갈 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낮은 예금에 집중하는 대신 투자상품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해 자산 수익성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번 포럼이 금융 자산과 연금을 축적하는 현명한 투자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시즌2 VIP 한자리에 이장규(가운데)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밸류업 성공 키워드는 ‘노력’... 힘 모아야”

축사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100세 시대 인프라 구축 최선”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밸류업 추진의 성공 키워드는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꾸준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국민 자산형성과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단단한 시장 인프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유석 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4 100세 플러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포럼’ 축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이 따라붙는 한국 증시를 100세 시대 준비에 유용한 시장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사실”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최근 민관이 합심해

기업 밸류업, 나아가 자본시장 밸류업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금융투자업계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퇴직연금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상품을 공급하고 판매 절차를 개선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확대하는 한편 디폴트 옵션 편입, 상품 다양화, ISA 제도 개편, 장기투자세제 확대 등 자산관리 시장 편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투협은 올해 하반기 대중성 있는 우수 공모펀드를 상장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자산배분형 펀드를 업계 공동 브랜드화한 가칭 ‘디딤 펀드’도 출시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

기조강연

이재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이 의장, 경제·사회 변화 전망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어야”

“밸류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코스피 지수 5000을 넘어서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이끌 것이다.”

이재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은 17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에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 의장은 이날 ‘New Era, New Paradigm(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경제·사회 변화의 흐름을 짚었다.

강연에 따르면 저금리·디플레이션이 지속되던 경제 흐름은 고금리·인플레이션 시대로 변화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다. 과거 군사력과 권력 즉 힘이 지배하던 세상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대세가 되며 돈이 득세하는 세상으로 변화했다. 그러면서 사회는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위기를 맞았다. 새로운 대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제는 ‘도덕’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이 의장은 “ESG 경영이 중요해지고 착한 기업이 각광을 받는 ‘도덕이 지배하는 척’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며 “이제는 지배구조의 개선 의지가 있고, 주주를 위한 배당을 늘리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 정부가 제시한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의장은 “정부가 제시한 밸류업 프



이재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이 기조강연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미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밸류업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많지만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절호의 찬스가 될 것이고 장세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은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에서 상장주식 22조9000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8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한국 주식은 올해 EPS 증가율 68.93%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턴어라운드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장은 현재 정부와 야당이 추진 중인 세법 개정과 상법 개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정부는 배당 분리과세, 상속세 인하 등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당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유예와 함께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은 기업에 채찍 역할을 하고, 세법 개정은 기업에 당근 역할을 한다”며 “이 당근과 채찍이 실질적으로 균형있게 실행된다면 코스피 지수는 5000도 기대할 수 있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세경 기자 seilee@

“韓, 자본시장 유리천장 깨야할 때”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줄탁동시(병아리가 앞에서 깨어나기 위해 어미 닭은 밖에서, 병아리는 안에서 쪼아 껍질을 깨뜨리는 것)라는 말이 있다.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은 외부에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은 주주친화적 경영을 할 때다.”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개회사를 통해 밸류업 프로그램의 당위성을 이같이 표현했다.

이 대표는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미국 증시와 달리 한국 증시는 자본시장의 유리천장을 깨지 못하고 박스피에 갇혀 있다”며 “정부가 공들여 진행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은 그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들 역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밸류업으로 증시가 10%만 상승해도 시가총액은 260조원이 증가한다. 박스피 탈출이 본격화되면 배이비버머 등의 신규 자금 유입이 늘어나 증시도 선순환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며 “이 포럼을 통해 박스권 100세시대 체태크의 새 지평이 열리길 기원한다”라고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전지원 기자 jjw13@

뉴스비바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美 부통령 후보도 줄곧 ‘아메리카 퍼스트’...동맹 우려 커졌다 /사진 뉴시스
▲ 북·러 “나토 아시아·태평양 확장 우려”



▲ 몽골 대초원, 올해 서울의 11배 면적 산불로 초토화 /사진 뉴시스
▲ 러시아 외무 “美 대통령 누가 되든 협력”

▲ 英 물가상승은 스위프트 때문?...해석 분분
▲ 해외로 뺀 K-원전, 바라카부터 체코 두코바니까지 무한도전



CJ, 프랑스 파리서
코리아하우스 운영
K-컬처 국가대표로
나



Life

삼성전자
갤럭시 북4 엣지
6년째 에너지대상
L2



“축적기’ 만큼 중요한 ‘인출기’ 생애주기 맞는 전략 필요”

강연

김 경 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트렌드 파악해 3가지 리스크 줄여나가야
인출기에도 부동산·주식 섞어 자산 구성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4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에 참석해 강연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군사작전’에서 공격보다 까다로운 것이 있
니, 그건 바로 ‘후퇴(withdraw)’다. 후퇴할 때 공격
받기 가장 쉬운 탓이다. 후퇴를 하면서 상대의 공격
을 막고 아군을 잘 지켜내는 것이 최선의 철수작전
이다. ‘인출’은 ‘후퇴’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축적’
보다 더 까다롭기에 이 부분을 잘 준비해야 한다.”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17일 메트로
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서울 영등포구 한
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
2’에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산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100세 시대의 자산

관리 전략-인출시대의 도래와 인출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현재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4년 출생)는 은
퇴시기를 넘겼고, 2차 베이비붐 세대(1965~74년

출생)는 10년 안에 대다수 정년퇴직에 들어가게
된다. 김 고문은 이런 통계를 제시하며 “결국 자본
의 ‘인출 수요’가 많아지게 된다”며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된다면 한국의 적립기금은 오는 2041
년부터 ‘수지 적자(인출)적립+수익’로 전환할 것
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인출기’는 일반적으로 자
산 축적이 없는 ‘노후’를 의미한다.

‘인출 트렌드’를 파악해 ‘인출기의 3가지 리스
크’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게 김 고문의 전략이다.
김 고문은 “‘인출기’와 ‘축적기’는 완전히 다른 전
략을 추구해야 한다”며 “자산을 축적할 때는 자산
을 어떻게 불릴지 고민해야겠지만, 인출할 때는
철저히 ‘은퇴소득’을 만들기 위한 상품 배분에 대
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3가지 리스크로 ▲구매력 리스크 ▲
장수 리스크 ▲수익률 리스크 등을 들었다. 그는
인출기에도 구매력을 유지하려면 부동산과 주식
을 섞어 자산을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젊은
시절에는 꾸준한 근로소득이 있기에 자본이 축적

되지만, 나이가 들면 물가 상승률만큼은 축적된
자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
해야 한다는 말이다.

김 고문은 “자산배분의 키포인트는 주식 비중을
얼마나 두느냐에 달렸다”라며 “종신연금을 위한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할까, 이 연금을 언제부터 받
아야 할까, 위험자산 비중을 얼마나 줄여나가야
할까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수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65세~74세
를 ‘고령 전기’로, 75세 이상을 ‘고령 후기’로 나누
고 시기에 맞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에는 ‘유동자금’이 필요하고 후기에는 장수를
대비해 ‘종신형 연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고문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주택연금’을 통해 안
정적인 인출 방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김 고문은 “저마다의 상황에 맞춰 인출 비중에 대
한 ‘동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때”라며 증권업계
에 “좀 더 다양한 월분배형 펀드가 개발되길 바란다”라
고 제언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집값 양극화... 주변 동조화 지켜보아야” “美 투자수익률 20%... 기업 ROE에 주목”

강연

정 재 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

부동산 상승장 주변으로 동조화 전망
하락장에서 과도한 추격매수 피해야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지금 국내 부동산 시장은 N자형으로 가고 있
다. 서울 집값의 양극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떤 지역들이 N자형으로 동조화될지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은
‘2024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에서 양극화된 국내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향후 부동산 투자시장을
전망했다. 정 차장은 “전국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전
국 단위로 하락했지만, 서울 전세는 상승했다”며
“하지만 시세총액 상위 20위권과 선도 50위권 지수
는 작년 3월부터 이미 상승해 왔다”고 분석했다.

다만 서울에서도 강남에서부터 서초 지역 등 일
부 지역이 부동산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고 짚었
다. 정 차장은 “서울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들
도 있다”면서 “지금은 긴축의 시대이기 때문에 투
자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들을 위주로 오르고 있
지만 나머지도 시간이 지나면 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지역의 상승 흐름이 주변으
로 번지면서 동조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 차장은 “반포에서부터 시작된 상승장이 이제
는 과천, 분당, 동탄 방향까지, 그리고 지금은 경
기 이남 쪽으로 동조화되고 있는 게 목격됐다”며
“현재 고가로 선호되는 아파트들은 올랐고, 이들
의 온기가 주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는 상승
흐름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
동산 시장이 상승하지 않고 있다는 말도 맞다’고
평가했다. 특히 5대 광역시에 대해서도 최근 상승
세를 보인 적이 없다고 짚었다. 약세를 보이고 있
는 지역들의 미분량 몰량, 매매가격 하락세 등이
해소돼야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연이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거래
량 레벨업’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하락장에서 ‘영끌족(영혼까지 팔
어모아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이 무리하게 추
격매수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차장은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준비가 됐을 때 매수하는 것이 좋고, 과도
한 추격매수를 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며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는 맞지만 추세적으로
빠르게 이뤄지긴 어려운 만큼 무리한 대출을 통
해 집을 구하지는 않는 게 좋다”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강연

김 세 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

미국기업, 자사주 매입 등 투자수익률 올려
구글, 엔비디아 등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해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미국은 벌어들인 돈에 91%를 주주 환원으로
쓰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이 오를 수밖에 없다”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
장은 ‘100세 플러스포럼’에서 “투자 시 가장 중요
하게 봐야 할 것은 ROE로 기업의 이익이 좋거나
자사주 배당 등 주주환원을 확대할 경우 ROE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IT 버블 이후 시장이 안정화된 것으로 봤
을 때 현재까지 글로벌시장에서 미국의 자기자본
이익률만 유일하게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
국은 11% 한국은 9%로 집계됐다.

김 팀장은 “미국은 투자 수익률이 20% 정도 나
오는 시장으로, 90%의 주주 환원율을 70%까지
내려도 ROE 20%는 유지할 수 있다”고 진단하면
서 “미국기업들은 지금 필요 이상으로 자사주 매
입이나 배당을 많이 하면서 투자 수익률을 올리
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플을 예로 들면서 “애플의 ROE는
140%에 달하는데 한국의 평균 ROE(9%), 미국
의 평균 ROE(20%)보다 월등히 높다”며 “애플의
ROE가 높은 이유는 매출이 둔화되던 시점인
2013년부터 자사주 매입을 본격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

아 등의 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
분하다고 평가했다. 김 팀장은 “이들 기업의 주가
가 오르는 것은 인공지능(AI) 기술의 중요성도
있지만,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을 통해 ROE를 올
렸기 때문”이라며 “구글이 최근 애플처럼 자사주
매입을 늘리고 있어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학개미에게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해선 “엔비디아의 자기자본 이익률은 70%에
달하며, 영업 마진도 69%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비율(PER)은 38배로, 과거 IT 버블 시기와
비교했을 때 비싸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미국 주식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체력이 얼마나 튼튼한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에서 만들어놓은 밸류에
이션 모델과 투자 철학대로만 한다면 대부분은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국보 안동 하회탈·병산탈, 버드나무
로 만들었다 /사진 뉴스스
▲구자철도 축구협회 비판 “이렇게 가
면 미래 없어”

▲황희찬, 인종차별 보호 못 받나...UE
FA “공식 경기 아니라 조사 불가능”
▲쫓기는 SSG·따라잡은 NC·추격하
는 KT...5강 경쟁 점입가경



▲‘전설’ 오티스·라미레스·그루질라넥
아들, MLB 드래프트 지명
▲‘르브른 아들’ 브로니, NBA 서머리그
첫 승·첫 3점슛 성공 /사진 뉴스스